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00호

Tuesday, April 23, 2024 A



한인 시니어 고 현기순씨(왼쪽사진)와 현씨가 입주했던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의 전경.

[너싱홈 페이스북]

너싱홈 한인 사망... 1천만불 소송

한인 시니어가 고급 너싱홈에 입주하자마자 하루 만에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돼 유가족이 주 정부와 요양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죽음을 초래했다며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존 현 씨 등은 포틀랜드 인근 너싱홈인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의 과실로 현기순(83)씨가 사망했다

며 지난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뿐만 아니라 오리건 주 복지부(ODHS), 요양 시설 교육 및 관리 업체인 아반트 시니어 하우징 매니저 등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에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현씨는 이날 마운트 후드 너싱홈에 입주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어머니는 입주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실종됐고 일

마 후 인근 지역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며 “너싱홈 측은 어머니의 실종 사실을 우리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실종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씨가 발견된 곳은 너싱홈에서 불과 약 0.5마일(약 800야드) 떨어진 숲속이었다. 현씨가 발견된 날은 크리스마스였다. 장영 기자 >> 4면 '너싱홈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주미대사관 장애인직원 직장내 괴롭힘 당해 '구설'

주미대사관에 현지 채용된 장애인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체장애인 A 씨가 장애인 제한 경쟁 전형을 통해 워싱턴 주미대사관에 실무관으로 입사한 것은 지난 2022년. A 씨는 상관인 B 서기관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던 전임자 이야기를 꺼내는 등, A 씨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교로 들렸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가를 쓰는 것을 두고서도 갈등을 빚었다고 했다. 다른 직원들과의 자리에서 A 씨가 장애인이라 쉽게 채용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해도 주변에선 서기관 임기인 2년만 참으라

는 이야기가 돌아왔다고 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9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 후 이런 사실을 관계 부처에 신고했다.

한국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갑질이 맞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에선 지난달 B 서기관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면서도, 문제가 제기된 지난해 8월 이후 업무 조정을 통해 이미 돌을 분리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사관에서 2년만 견디라고 했다는 주장은 신고 당시에 없던 내용이며, 알았다면 더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정재호 주중대사가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등, 주요 재외공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JTBC=김필규 특파원]

“초과 지급 웰페어 미반환시 압류”

사회보장국 지급 중단 경고
시니어·장애인 생활고 우려

사회보장국(SSA)이 시니어와 저소득층에게 초과 지급한 생활보조금(웰페어-SSI)이나 연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A는 초과지급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달 웰페어나 연금 일부를 압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SSA는 지난해 9월부터 수백만 명

의 수혜자들에게 초과 지급한 웰페어를 돌려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해왔다. 그러나 반환금 규모가 미미하자 올해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SSA는 통지서에 “초과지급금을 30일 안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혜택 지급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부분의 통지서 수신자가 은퇴 연금 수령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시니어들로 반환 능력이 제한적이라 웰페어나 연금이 중단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가 나온다.

이에 대해 SSA는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 최대 60개월 동안 월 최저 10달러부터 갚을 수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 지급금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 재정 상태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SSA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가 끝나는 작년 9월 말까지 지급된 초과지급액은 230억 달러이며, 이중 되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16억 달러에 달한다. 초과금액 중 절반은 은퇴 연금 수혜자에게 지급됐으며, 나머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시니어에 지급되는 웰페어 수혜자로 파악됐다.

장영화 기자



엄마는 공습으로 숨졌지만... '1.4kg 아기의 기적' 지난 21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숨진 여성의 배 속에 있던 아기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다.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피란민으로 지내던 임신 30주의 산모가 공습으로 숨지자 응급 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해 아이를 살렸다고 밝혔다. 1.4kg으로 한때 생명이 위태로웠던 여자아이의 인큐베이터에서 안정을 찾았다. 아이 이름은 엄마를 따라 '샤브린 주다'로 지어졌다. 아빠와 엄마, 4세 언니는 모두 숨졌고, 아이는 퇴원 후 할머니 손에 맡겨질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질
순금 아기 물반지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SCAN ME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비서실장 정진석” 직접 발표한 윤 대통령

“여야와 원만한 소통 위해 모셨다”
홍철호 정부수석 임명도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서실장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 후 12일 만에 나온 첫 인선이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일보 기자로 시작해 5선 국회의원도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실장의 이력을 설명하며 “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부의장님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이라고 했다. 관료 출신인 전임 실장(김대기·이관섭)과 달리 정 실장은 정치인 출신이다.

정 실장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계와 국회·정당에서 오랫동안

안 다양한 인맥과 경륜을 쌓아 온 점을 우선 고려했다”며 “거대 야당을 상대로 중재력과 소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시간 뒤인 오후 3시30분쯤 청사 브리핑룸에 다시 서서 새 정부수석으로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임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보고도 본다”고 기자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홍 수석에 대해 “당의 많은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다”며 “무엇보다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홍 수석은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다”며 “정부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반은 배우면서, 반은 의회 경험을 가지고 프렌들리하게 일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에서 직접 참모 인선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라고 물으며 예고에 없던 즉석 질의응답도 나왔다. 오전 브리핑에선 국정 운영의 구체적 변화 계획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비서실장으로 선임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오른쪽)을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의 회동 의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각 질문에 2분 가까이 답하며 “저는 듣기 위해 조정할 것이니 어떤 의제 제한을 굳이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후임 총리 인선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후임 총리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를 용산에 초청했기

때문이 그와 관련해 여러 얘기를 주고 받아야 한다”며 “제가 볼 때는 정부수석을 빨리 임명해 신임 수석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그와 관련해’ 부분은 영수회담 준비 절차를 가리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언론의 공개 질문을 받은 건 2022년 11월 이후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뒤 1년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인선 발표 전 참모진에게 “직접 내려가서 소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브리핑룸에 자주 내려가겠다. 기자들과도 수시로 만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질의응답을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 혹은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언론사 간부 간의 소통 자리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용산 참모는 “지금 분위기라면 정해진 건 없지만 도어스테핑 재개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는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의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을 가감 없이 듣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해 가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라며 정 실장에 대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폭넓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실장은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며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시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현일훈·박대인 기자**

2016년 ‘검사 윤석열’ 만나 친구로... 2021년엔 정계 입문도 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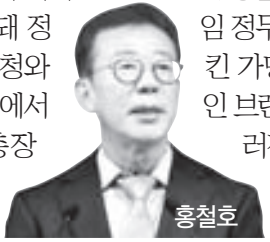
새 비서실장 정진석은 누구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 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충남 공주 출생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정 실장은 한국일보에서 15년간 정치부, 워싱턴 특파원 등으로 기자 생활을 하다 2000년 16대 총선에 부친(고 정석모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충남 공주-연기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부수석을 했고,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21대 국회

에서는 국회부의장을 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 실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진검으로 좌천돼 있던 ‘검사 윤석열’을 처음 만났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부친(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이 공주 농고 졸업생이라는 말을 듣고 “그럼 고향 친구로 지내자”고 했다고 한다. 둘은 1960년생 동갑내기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2021년 검찰에서 나와 정계에 입문할 때도 앞장서 도왔다. 같은 해 6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는 24명의 의원을 직접 불러모으기도 했다.

◆홍철호 수석은 ‘굽네치킨’ 창업자=홍철호 신임 정부수석은 경기 김포 출생으로 2005년 치킨 가맹점 ‘굽네치킨’ 사업을 시작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홍 수석은 2014년 치러진 경기 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문한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현일훈 기자**



홍철호

여권 ‘윤·한 오찬불발’ 갈등설 우려 “빨리 만나야”

김경울 “금요일 전화, 월요일 오찬 이해 안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오찬 회동이 불발된 것을 놓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둔 채 독자 행보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지난 금요일(19일) 오후, 월요일(22일) 오찬이 가능한지 묻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았다”며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회동 제안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김경울 전 비대위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아무리 한 전 위원장이 백수 상태라고 하더라도 금요일에 전화해 월요일 오찬을 제안한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며 “정말 만나려고 했더라면 시간을 두고 ‘날짜 두세 개 주면

라’ ‘적절한 시간을 정해 보라’고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과 만나지 않는다면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오찬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의 원도 “한 전 위원장이 불편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날짜를 딱딱이 잡더라도 일단은 대통령 초청에는 만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여당 내에선 두 사람의 오찬 불발을 갈등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당선인은 SBS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 는 쉽지가 않은 시간”이라며 “갈등을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 대통령·한 전 위원장) 두 분이 오랫동안 일을 같이해왔던 것 만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민구 기자**



한동훈

워싱턴 날씨 (°F)

24일(수)	72~44	☁	27일(토)	67~55	☁
25일(목)	61~42	☀	28일(일)	83~61	☀
26일(금)	66~46	☀	29일(월)	81~60	☀

4월 23일(화) 72~5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조이장로교회 임직예배

할렐루야!
새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월 28일 저희 조이장로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 장로안수: 이윤석
- 권사취임: 배재연, 이옥희
- 명예장로: 최운기
- 명예권사: 김명희, 김숙자, 김순옥, 이춘화

일시: 2024년 4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조이장로교회 전화: 703-231-5828
4300 Evergreen Ln., Annandale, VA 22003

조이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성무 외 임직자 및 교우 일동 드림

“과거에 영광을, 미래에는 영감을”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50주년, 초대형 만찬 행사 성황

워싱턴한인복지센터(KCSC, 이사장 김진아)가 창립 반백년을 기념하는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45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21일 버지니아 맥클린 소재 힐튼 타이슨스 코너 호텔에서 열린 50주년 연례 기금 모금 만찬 행사에는 관계자, 하객, 지역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과거에 영광을, 미래에는 영감을(honoring the past inspiring the future)’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만찬에서 김진아 이사장은 “1974년 동포사회를 섬기는 작은 한인 교회 소속 봉사단체로 시작됐던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가 50년을 맞은 지금 30명의 전문 인력, 100여명의 봉사자, 17명 이사회로 구성된 연예산 400만 달러 규모의 워싱턴 지역 최대규모 비영리 봉사단체로 성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1 김진아 이사장(가운데)이 맥케이 위원장(왼쪽), 지메네즈 수퍼바이저로부터 결의안을 전달받고 있다. 2 만찬에는 450여명이 모였다. 워싱턴 지역 한인 단체 행사로는 수년만에 최대 규모다.



2 만찬에는 450여명이 모였다. 워싱턴 지역 한인 단체 행사로는 수년만에 최대 규모다.

김 이사장은 “1세대를 넘어서 어려움을 겪는 한인 1.5세와 2세대까지 섬기는 단체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찬에서는 마크 김 전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과 황원근 전 평통미주

부의장이 공공 서비스상을 받았고, 글로벌 미션 교회(담임목사 박승진), 비영리단체 카파노바(CAPA NoVA)가 지역사회 봉사상을, 김순옥, 구옥남, 박상옥 씨가 대통령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단체의 50년 봉사를 축하하는 각종 결의안과 감사장을 전했다.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 마크 얼릭 몽고메리카운티 이그제큐티브 등은

보좌관을 보내 축하했으며, 제프 맥케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장, 댄 할머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릴리 쿨 메릴랜드 주하원의원, 팻 해리티 스프링필드 수퍼바이저, 안드레스 지메네즈 메이슨 수퍼바이저 등은 축하 연설을 통해 “이제는 비주류 사회의 주류를 이룩한 한인사회에 대한 봉사를 위해 단체가 더욱 노력해 달라”는 격려와 당부를 전했다.

한편 행사의 진행은 CBS의 메인앵커로 활약하는 한인 애니 유 씨가 맡았다. 조기중 총영사를 비롯해 한인 각계인사들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조 총영사는 “50년간 목적 잃지 않고 한인사회 발전 및 한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단체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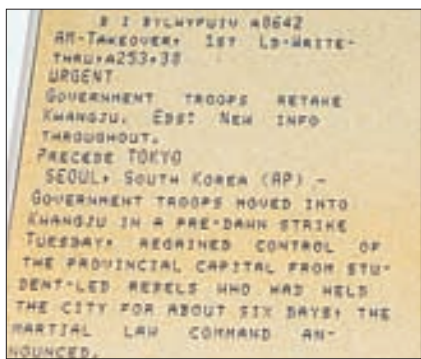
5·18 광주 실상,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별세

1980년 AP 특파원으로 광주 취재 몰래 촬영하다 계엄군 총격 받아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사진) 전 AP통신 특파원이 21일 별세했다. 76세. AP통신 등은 그가 심장 수술 합병증을 앓다가, 뉴욕주 그린우드 레이크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앤더슨은 AP에서 아시아·아프리카·중동 특파원으로 근무했다. 특히 한국 언론이 보도 통제된 상황에서 1980년 5월 22~27일 광주를 취재해, 세계에 실상을 알렸다. 직접 시내 곳곳을 돌며 사망자 숫자를 확인한 그는 AP 도쿄지국을 통해 “계엄군은 사망자가 3명이라고 했지만, 시민군 쪽은 261명이라고 했다”며 “이렇게 많은 시체를 본 것은 처음”이라고 타전했다. 2020년 광주광역시에 기



그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 [AP=연합뉴스, 뉴시스]

증한 또 다른 기사에서는 “광주 시민들은 ‘시위가 처음에는 평화롭게 시작했지만, 공수부대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소총·총검으로 진압하면서 격렬한 저항으로 변했다’고 말했다”고 썼다.

그와 함께 현장을 취재했던 존 니덤은 1989년 LA타임스 기고 글에서 “앤더슨이 전남도청이 내려다보이는 호텔 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진을 찍다가 계엄군의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앤더슨은 AP 베이루트 지국장으로 일하던 1985년 3월, 시아파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에 납치돼 6년 넘게 인질 생활을 했다. 억류 기간 구타와 학대를 당해, 석방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에 미 연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동결된 이란 자금을 통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투자에 실패해 대부분을 잃었다. 2004년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뒤에는 컬럼비아대 저널리즘 대학원 등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

유족으로 딸 2명과 부인이 있다. 딸 슬로메는 워싱턴포스트에 “아버지는 영웅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했지만, 모두가 계속 그를 그렇게 불렀다”고 했다. 줄리 페이스 AP 수석부사장 겸 편집국장은 “앤더슨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보도하는 데 전념했으며 커다란 용기와 결의를 보여줬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김민정 기자

‘메디케어 의존’ 시니어 증가

민간보험 동시 가입자 감소
비싼 비용 탓에 가입률 하락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의 의료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2022년 민간 건강보험과 메디케어에 동시에 가입한 65세 이상 성인의 비율은 39.6%다. 2017년에는 전체 시니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9%였는데, 5년 만에 폭 떨어졌다.

민간 보험 없이 메디케어만 가입한 시니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메디케어만 가입한 인구의 비율은 37.6%에서 44.8%로 증가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성인이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다.

영주권자라도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났다면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2022년 65세 이상 인구의 메디케어 가입률은 98.9%에 달했다.

민간 보험의 경우 직장의 보조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기엔 비싼 비용이 문제다. 통계적으로도 직장 유무에 따라 민간 보험 가입률이 크게 차이가 났다.

풀타임 근무 시니어의 경우 2022년 민간 보험과 메디케어에 모두 가입한 경우가 40%다. 파트타임 근무 시니어는 이중 보장률이 52%에 달했다. 일하지 않는 시니어는 이중 보장률이 37.8%로 가장 낮았다. 이들은 메디케어 이중 보장률이 단독 가입률(49.2%)보다 낮은 유일한 그룹이다.

보고서는 “통상 고용주를 통해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 중인 경우 비교적 저렴하게 민간 건강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이중으로 보장받는 시니어의 비율은 모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하은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옹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탐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Little River Tnpk. 495 우체국 Shell 395 236 John Mann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의사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최고급 너싱홈 관리소홀 도마위에

▶1면 '너싱홈 사망'에서 이어집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너싱홈은 건물 출입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입주자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선택했던 이유는 환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은 입주 계약 시 우리에게 어머니가 안전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안심시켰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주 정부와 관리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너싱홈 운영을 중단하거나 신규 입주자를 받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너싱홈의 관리 시스템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신문인 OPB는 17일 요양 시설 조사 기관인 '오리건주 롱텀 케어 옴부즈맨(OLTCO)'의 보고서 인용,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위험 신호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OLTCO는 "해당 너싱홈이 현씨와 그의 입주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이 너싱홈은 시니어 1인당 월 7000~9000달러를 받는 고가의 요양 시설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 중 한명인 존 현씨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리건주 주민들을 위해 합당한 판결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ODHS측은 대변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다.

정철 기자

또 한인 노숙자 사망... 텐트 안에는 라면 두봉지

현장르포

옆 텐트 한인 사망에 울먹이기도 노숙자 돕던 사역자도 길거리로

LA한인타운 노상에서 또 한명이 사그라들었다. 21가 인근에서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 김요한 신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길거리에서 살아가던 안태홍(65)씨가 지난 18일 밤 숨을 거뒀다는 전화였다.

지난 9일 사망한 한인 노숙자 피터 최(34)씨 이후 들러온 또다른 비보다.

LA는 봄 기운이 완연하다. 햇빛 길바닥은 여전히 차갑다. 그 괴리는 좁혀지지 않는 LA의 만성 문제다. 노숙자들에게 현실은 여전히 희망이 없다. 안씨가 죽었다는 길거리로 직접 나가봤다. 그곳에서 한인 노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9일 오전 10시 50분, 올림픽 길과 세인트 앤드루스 교차로 북서쪽 코너다. 이곳은 LA한인타운의 작은 스킨드로. 한인 노숙자 10여명이 텐트를 치고 몰려 산다. 안씨도 그중 한명이었다.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의 소리는 시끄럽다. 길거리의 사람이었던 안씨의 죽음은 그 소리에 묻히고 있다. 안씨가 살던 텐트 안을 살펴봤다. 작은 전구 하



지난 18일 사망한 한인 홀리스 안태홍씨 텐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김요한 신부(왼쪽)와 과거 노숙자 사역을 했으나 지금은 노숙자가 된 이강원씨(오른쪽)의 모습이다.



김상진 기자

나만 달랑 달려있다. 라면 봉지 두 개가 눈에 띈다. 피자국이 흥건하다. 냉랭한 텐트 안은 생전 안씨의 삶을 대변한다.

노숙자들도 감정이 있다. 옆 텐트의 노숙자에게 안씨의 사망 소식을 아는지 물었다. 노숙자 박준씨는 "어젯밤이었다. 텐트를 열었는데 안씨가 옆드린 채 죽어있더라"며 "김요한 신부에게 사망 사실을 알렸고, 김 신부가 현장으로 직접 와서 보고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뉴욕에서 사업가로 활동했다. 위험한 길거리에서 산지는 1년째다. 그의 한쪽 눈은 별경게 퐁퐁 부어있었다. 사연을 들어봤다. 그는 "한인타운 맨해튼 플레이스 인근에서 텐트에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남성이 들어와 총

을 쏘다"며 "그때 사건으로 눈 하나를 실명했다"고 했다.

노숙자도 자리싸움을 한다. 타인종 노숙자들로부터 텃세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인 노숙자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씨의 삶은 곧 길거리 사람들의 인생이다. 안씨의 사망 소식은 그들에게도 슬픔이다.

안씨의 사연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다른 노숙자들은 "말할 기본이 아니다"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김 신부도 텐트를 찾았다. 안씨가 눈을 감은 그 자리에 성경 한권을 두고 향을 피웠다. 연고가 없으니 김 신부라도 망자를 챙겨야 했다. 그는 "조만간 쉼터에서 장례식을 조촐하게라도 열어서

확"이라고 했다.

안씨 뿐만 아니다. 한 블록을 더 걸어가 봤다. 중앙루터교회 앞이다. 또 다른 노숙자인 이강원 씨를 만났다. 그는 과거 야가페 홈미션을 운영했던 사역자였다. 노숙자를 챙겨주던 이가 노숙자가 된 셈이다.

이씨는 야가페 홈미션을 운영하며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씨가 작은 유리 파이프에 힘겹게 불을 붙이고 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담배는 아니다. 물어보니 마약류를 흡입 중이라고 했다.

그의 몸은 앙상하다.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았다. 말도 횡설수설이다. 길거리에서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 지 짐작이 된다. 차이는 거의 다 부식됐다. 말투는 어눌하다. 이씨는 "길거리로 나온 지 5년이 넘었다"며 "기부금도 줄어들어서 야가페 홈미션을 운영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남성 노숙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씨는 "한인 여성 두 명도 이 근처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는 대화를 이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리곤 멍한 눈으로 작은 유리 파이프에 입을 댔다. 맑은 하늘이 무색하다. LA한인타운 노숙자들의 삶이다.

LA한인타운=김경준 기자

한인 기업가 5200만 달러 저택 구매

유명 한인 기업가가 말리부 지역에 초고가 저택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가주 베이저역 매체 SF게이트는 빅테크 임원 출신 투자자이자 프로미식 축구(NFL)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공동 구단주인 기데온 유(한국명 기돈·작은 사진)씨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말리부 해안 언덕 주택(사진=구글어스 캡처)을 5200만 달러에 구매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지역 거주자로는 밥 딜런, 손 펜, 크리스 마틴, 줄리아 로버츠, 오연 윌슨



을 비롯해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등이 있다.

2020년 2200만 달러에 구매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리모델링한 0.76에이커 부지의 주택은 약 6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생활 공간에 침실 5개, 욕실 7개 및 테니스코트,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유씨는 지난 2021년 북가주 팔로알토 인근 부촌 애서튼 지역 주택을 2450만 달러에 매각한 후 아내 민혜정씨와 함께 LA로 이주해 셔먼오크

스에서 950만 달러짜리 주택을 장만, 거주하고 있다.

1971년 한국 태생인 유씨는 테네시주 내슈빌서 고교 졸업 후 북가주 스탠퍼드대에서 산업공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실리콘 밸리에 입성한 유씨는 야후 재무담당 수석 부사장, 유튜브브와 페이스북 최고재무책임자를 역임했다.

지난 2012년 49ers 공동 구단주로 임명된 유씨는 2013~2014년 NFL 사상 첫 아시아계 사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에는 한미은행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박낙희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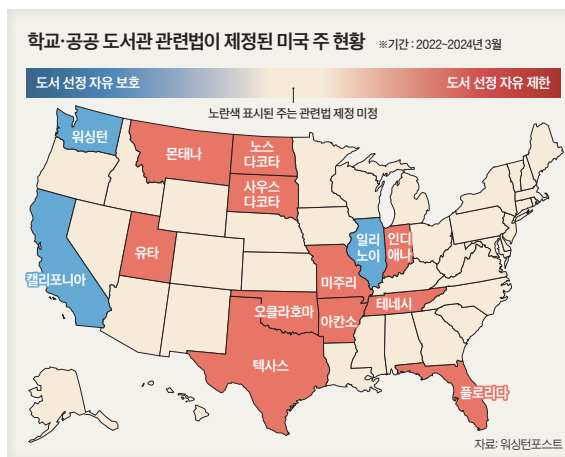


“성소수 서적 없애야” “사상의 자유”... 책으로 쪼개진 미국

보수성향 11개주 “자녀 보호 권리” 학교 등에 비치한 사서 최대 10년형 진보성향 주들은 “소수자 혐오 안돼” 금지금지법·사서명예훼손법 등 발의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학교·공공도서관이 ‘문화 전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우세 주)에서 LGBTQ(성소수자)·인종문제 등을 다룬 책을 금지(禁書)로 지정하고 이를 어긴 사서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주)는 금서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금지법’으로 맞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022년 이후 유타·플로리다·텍사스 등 10여 개주가 선정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을 담은 책을 도서관에 비치하면 사서를 최대 징역 10년, 2만 달러의 벌금으로 형



2023년 미국 내 금서 지정 요청 가장 많이 받은 책

순위	도서 이름	요청 사유
1	젠더 퀴어(사잔)	성소수자 및 성적 표현
2	모든 소년은 파랑지는 않다	
3	이 책은 게이	
4	일몰리의 특권	
5	플레이머	

자료: 미국도서관협회

사처벌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올해 최소 27개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주들은 대부분 공화당이 우세한 레드 스테이트다.

반면 민주당이 강세인 블루 스테이트에선 ‘금지금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선 올해부터 성 소

수자나 인종 문제를 다뤘다는 이유로 학교와 공공 도서관이 특정 도서를 금서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지 지정 금지법’이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선 공공 도서관이 당파적·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책을 금서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선 사서들이 책을 선정하는 문제로 인한 민원 등으로 정신적 고

통, 명예훼손 등을 겪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WP에 따르면 22개 주에서 금지·사서 괴롭힘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선 금서 지정 요청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국 도서관협회(ALA)에 따르면 지난해 금서 지정 요청을 받은 책은 총 4240권으로, 전년(2571권)보다 65%나 증가했다. ALA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이를 주도하는 건 보수 성향의 학부모다. 이들은 성소수자 관련 책 등이 청소년인 자녀들에게 동성애나 문란한 성생활을 부추킨다며 반발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의 금서 지정 증가세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유를 위한 엄마들” ‘유타 부모연합’ 같은 학부모 단체들을 통해 도서 검열 시도가 이전보다 조직화, 정치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선 금서 지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적 소수자와 소수 인종을 혐오하는 비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한다. 앤서니 얼리(민주당) 미주리주 하원 의원은 “도서관 책을 공격하는 건 배우고 성장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금서 전쟁은 최근 미국 사회 전반에서 보수·진보 간 이념 대립의 격화 양상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미국에선 흑인, 성 소수자, 여성 등 약자층이 걸려온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지는 지적 운동이 ‘워크(Woke)’란 용어와 함께 좌파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어났다”며 “이에 반발한 강경 보수 세력이 도서관 비치 서적 중 상당수를 좌파의 의식화 도구로 규정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불온서적 제거하기 운동을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승호 기자

더 세진 ‘한국어 열풍’... 47개국 학교서 가르친다

전세계 초중고생 20만명이 배워 ‘한국어가 제2외국어’ 23개국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 아이들을 보고 한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지난 19일 화상으로 인터뷰한 인도네시아의 카르멜 멜로사 아르다푸스타(15)는 블랙핑크 팬이다. 그는 중학교에 입학한 2020년부터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한국어가 필수과목이다. 매일 2시간씩 공부하는 그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말했다.

방과 후 또는 정규 수업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는 2014년 26개국에서 지난해 47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어를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인은 20만 2745명이다. 많은 국가에서 한국어 인기가 다른 외국어를 앞질렀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한 국가는 2014년 11개국에서 지난해 23개국으로 늘었다. 올해는 파

라과이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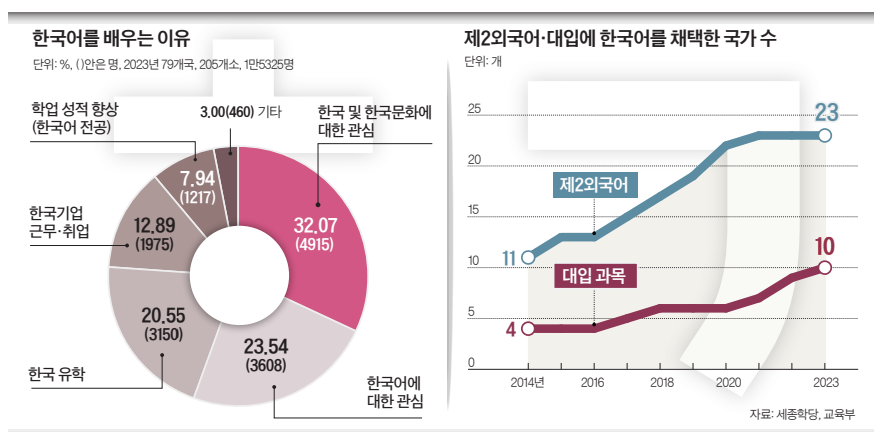
한국어를 대학입시 과목에 포함하는 국가도 증가했다. 2014년에는 4개국이었지만, 지난해 일본·프랑스·말레이시아 등 10개국으로 늘었다. 태국의 경우 지난해 대입에서 제2 외국어를 선택한 2만309명 중 4009명(19.8%)이 한국어였다. 중국어(39%)에 이어 2위. 2022년 추월한 일본어(18.9%)와는 격차를 벌렸다. 특히 베트남의 ‘한국어 학구열’이 뜨겁다. 한국어가 대입 과목 정도가 아니라 2021년 제1 외국어로 지정됐다.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프랑스어와 동급이다.

‘한국어 열풍’에 불을 지핀 건 역시 한류다. 튀르키예 출신 아흐멧 코파르는 “어릴 때 한국은 형제의 나라로 부른다는 것밖에 몰랐는데, 드라마 ‘주몽’을 본 뒤 한국 역사를 더 알고 싶었다”고 고교 시절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했다. 국내 대학에 다니는 한 인도네시아 유학생은 “자막을 기다리지 않고 한국 예능을 보고 싶어 한국어를 공부했다”며 “요즘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어학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 소비 목적을 넘어 구직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최근 추세다. 학창 시절 한국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어를 접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서 수준 높은 한국어를 배우 ‘스펙’을 만든다는 얘기도. 세종권 세종학당 경영기획본부장은 “베트남은 한국어에 능통하면 대졸 초임이 2배 이상 높아진다”며 “기업의 한국어 능통자 수요는 많은데, 아직 영어보다 희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학당이 지난해 수강생의 학습 목적을 조사한 결과 ‘한국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32.1%), ‘한국어에 대한 관심’(23.5%), ‘한국 유학’(20.6%), ‘한국 기업 근무·취업’(12.9%) 순이었다.

서지원 기자



뉴욕 한복판에 ‘한글 간판’ 식당 뉴욕에 ‘동남사거리 기사식당’이라는 한글 간판의 식당이 20일 개업했다. 간판만 보면 한국 같아도 지하철 역명이 뉴욕이다. [구글맵 JJ 리부 캡처]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케어피플 홈헬스
버지니아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메릴랜드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5/6 - 5/10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청년층 표심, 트럼프로 이동?

“경제난 해결할 인물로 평가”
우크라 지원 등에 부정적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청년층의 표심이 모이는 흐름이 감지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전통적으로는 대선에서 보수적인 노인 세대가 공화당 후보를 선호하고,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삶이 팍팍해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입주의 외교 노선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청년층 표심의 이탈 추세가 감지된다는 것이 외신의 분석이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달 여론조사기관 ‘임소스’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9세 응답자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29%로 트럼프 전 대통령(26%)과 불과 3% 포인트(P) 격차를 나타냈다.

지난 달 25~28일 실시한 마리스트 칼리지의 여론조사에서는 밀레니얼 세



유세장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대(24~39세, 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출생)·Z세대(18~23세, 1997~2000년대 초반 출생)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해 바이든 대통령(49%)을 2% 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나아가 공화당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도도 상승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임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6년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18~29세 응답자는 24%에 그쳤지만, 2020년 26%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2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승세는 유세 현장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2일 위스콘신주 그린베에서 열린 유세장에 몰려든 지지자 3천여 명 가운데 수백 명이 젊은 유권자들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청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눈길을 돌리는 주요 원인은 ‘경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고용행진하는 주거나 낮은 실업률보다는 치솟는 물가가 더 피부에 와닿는다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울러 응답자 대다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유대교 축제일 맞아 “이스라엘 철통 보호” 약속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21일 유대교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이스라엘에 대한 철통 보호를 약속했다고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월절은 심오하고 강한 믿음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신념이 있다면 박해를 견디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하마스가 저지른 만행의 공포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안전과 이스라엘의 안보를 비롯해 독립 유대국가로 존재할 권리에 대한 나의 책무는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유월절은 유대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기간으로,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위해 일시적 휴전 협상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정부는 인질 석방을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으며 양측이 균등한 안보와 번영, 평화를 제공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들의 석방을 위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협상 중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조만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를 공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접경한 라파에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이 은신해 있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反)유대주의가 미국 내에서 확산하는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고대의 유대인 박해 역사는 우리가 학교와 커뮤니티,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반유대주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면서 “침묵은 공모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러시아 “미국 우크라 지원해도 전장에 변화 없을 것”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군사 원조를 제공해도 전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사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을 포함하는 안보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 “사실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대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하고 우크라이나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덧붙였다.



“대부분의 돈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남아있을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런 종류의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얻고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원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의 지원안과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반년간의 진통 끝에 가결

했다. 동결 자산 압수와 관련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경제 체제의 모든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국유·사유 재산 모두에 대한 침해로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대응 조치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또한 많은 투자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언제든지 외국 투자자의 재산을 임의로 동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방부, 탐건과 시의 공중전 첫 공개

인공지능(AI)이 조종하는 전투기와 인간 조종사가 모는 전투기가 하늘에서 맞붙는다면 누가 이길까.

미국에서 AI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의 공중전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됐다고 뉴스위크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고등계획연구국(DARPA)은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 상공에서 이뤄진 이 시험의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AI가 조종하는 F-16 개조 전투기(X-62A)와 인간 조종사가 모는 F-16이 최대 시속 1천931km로 상대방 주변



AI F-16 전투기와 유인 F-16 간 공중전 시험 (고등계획연구국(DARPA) 홈페이지 캡처)

을 비행했다. AI F-16이 방어 및 공격 기능을 하며 유인 전투기에 약 610m까지 근접했다.

가시거리 내 근접 공중전으로 불리는 이른바 ‘도그파이트’(Dogfight)

가 벌어진 것이다. 이 공중전에서 어떤 F-16이 우위를 차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DARPA는 이번 공중전은 AI가 항공기를 조종하는 자율 전투시스템을 개발하는 ‘공중전 진화’(ACE) 프로그램의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랭크 켈달 공군장은 기계학습(머신러닝) 기반 AI 자율성이 “어떻게 역동적인 전투 기동 비행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2023년은 ACE 프로그램이 “기계학습을 공중에서 현실로 만든 해”라고 평가했다.

금융시장 지배자로 떠오른 자산운용사

금융시장의 지배자는 더 이상 대형은행들이 아니라 대형펀드와 이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금융위기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은행들을 제치고 경제 자금줄을 장악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당시 은행들과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은 엇비슷했다. 각 분야 모두 120억 달러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각종 펀드에 들어있는 자금이 약 43조5천억 달러로 은행 자산 23조 달러보다 두 배나 많다.

일부 대형 펀드의 경우 자산규모가 어지간한 국가의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 빅 4로 분류되는 블랙록,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의 자산을 합치면 약 26조 달러로, 미국의 연간 경제 생산액 전체 수준이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자산규모는 4조1천300억 달러로 독일의 4조800억 달러보다 크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자산(1조3천700억 달러)은 인도네시아(1조3천200억 달러)보다 많으며 블랙스톤 자산규모(1조400만 달러)도 네덜란드(1조100만



달러)보다 크다.

자산운용사들의 성장은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위기를 수습하면서 정부 당국은 은행들에 새로운 규제를 가했고 이로 인해 은행들의 투자와 대출이 축소됐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해 고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이나 국채 투자를 외면하게 했다.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자문을 주로 하는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의 타이러 클로허티 상무는 “자산관리 사업이 금융 서비스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업무영역이 모호해졌다”면서 “요즘 주로 받는 질문이 ‘소매 고객 외에 어디를 사업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이다.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패널솔라
상담완료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공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시행 10년된 사전투표, 국민 입장 물을 때”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본 투표에 맞먹는 수준이 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금년중 국민에게 사전투표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조사를 하겠다.”

4·10 총선이 끝났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몇 가지 했다. 사전투표함의 이동 과정과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수검표를 도입하는 한편 신분증 스캔 자료를 총선 후 30일까지 보관기로 했다. 그럼에도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고 규격을 벗어난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논란을 부를 사안들이 발생했다. 총선 관리를 총지휘한 김용빈(65) 선관위 사무총장의 해명을 들어봤다. 그는 “사전투표의 성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본 투표처럼 되고 있어 국민 총의를 물어 개선택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은평구 선관위에서 심야에 선관위원 2명이 투표함 봉인을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불렀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선관위원들이 사전투표일 이전에 관의 투표함을 검사해 빈 상태임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봉인을 미리 붙여놓았다. 이어 사전투표가 끝나면, 은평구처럼 각 지역의 선관위에 도착한 관의 투표지들을 선관위원들이 해당 투표함에 넣고, 본 투표가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그러려면 투표함 봉인을 뜯어야 할 것 아닌가. 여야 추천 선관위원들이 함께 봉인을 뜯은 뒤 함에 사전투표지들을 넣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된 것뿐이다. 일각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스캔한 신분증 파일 수와 실제 발급된 투표지 수를 전수 대조한 결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구미·홍성 등에서 봉인이 해제된 투표함이 발견됐다.

“사전투표용 관내 투표함과 본 투표용 투표함 규격이 다르다. 관내 투표가 많아 관내 투표함이 더 크다. 그 함의 무게를 본 투표용 투표함에 쓴 경우가 있는데, 운반 과정에서 함이 흔들리면 서 무게와 본체 사이 이격이 생겨 봉인지가 다소 풀어진 거다. 정당 참관인과 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문제가 이 끝났다.”

-대구 남구에서 세로가 3cm 더 긴 투표지가 발견됐다.

“투표지는 롤 용지를 출력하는 건데 커팅값이 입력돼있다. 간혹 롤러가 잘 안 돌아 힘을 줘 당기는 과정에서 다소 길게



지난 10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 종합체육관에 설치된 4·10 총선 개표소에서 수검표가 진행되는 모습. 선관위는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 수검표 도입과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24시간 CCTV 공개 등 투표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사전투표로 선거 받은 끝... 취지 맞는건지 검토할 때”
 “봉인지 훼손, 규격 다른 투표지 등 논란, 문제 없었다”
 “투표소에선 정치적 표현 자유 없어... 대과 금지 당연”
 “민주당에 일제 삼푸·초밥도 안 된다하니 아무 말 안 해”

출력된 듯하다. 후보 한 분이 이의를 제기해 함으로 무효 처리했다.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지 조사해 보완할 생각이다.”

-사전투표는 법률상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일일이 날인하게 돼 있지만, 선관위는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지를 쓰는 기존 방식을 고수했다.

“고민 많이 했다. 법적으로 관리관 날인 방식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특별한 효과가 없는 반면 투표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봤다. 투표지 발급기가 투표소마다 최소 7대에서 최대 17대에 달하는 만큼 관리관 도장도 7~17개를 파야 한다. 관리관 한명이 인영이 다른 도장 7~17개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역삼동 같은 혼잡 투표소는 점심시간에 유권자들이 몰려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다. 관리관 날인을 도입하면 혼잡이 가중돼 난리가 나리란 내 생각이 맞았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가장 문제 삼는데.

“사전투표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70%였지만 ‘수검표 찬성’도 70%로 집

계됐다. 사전투표를 지지하지만, 신뢰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게 여론 같다. 내 생각인데 사전투표제는 본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보충적인 제도다. 그런데 보충적 기능을 넘어 이번 총선에서 보듯 사전투표율(31.28%)이 본 투표율(35.32%)에 맞먹어, 사실상 본 투표 기능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사전투표하는 순간 절반은 선거가 끝난 것 아니냐. 원칙과 예외가 전도돼있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성적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졌다.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결국 제도란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는 지가 중요하니 국민의 총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침 올해가 시행 10주년이다. 다음 달 선관위의 ‘3차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 입장을 묻는 조사를 하고 전문가 공청회도 연 뒤 종합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모바일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끝에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한 총선 여론조사에 대해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공표 중단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조사 방식이나 결과를 문제 삼아 공

표 중단을 요구한 건 전혀 아니다. 다만 데이터의 진실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업체에서 준 자료가 부실해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뿐이다. 예를 들어 문제의 조사는 서울 강서구를 대상으로 패널(조사군)을 잡았는데 강서의 선거구는 갑·을·병 3곳 아닌가. 강서 갑을 조사한다면 을과 병에 사는 패널들은 포함되면 안 되는데 문제의 조사는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문제는 끝까지 사실 여부를 따질 생각이다.”

-총선 여론조사의 불공정 논란이 많다. 첫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시작하는 조사도 있다고 한다.

“선관위의 규제대상은 선거 여론조사지 정치 여론조사는 아니다. 정치 여론조사는 총선 기간에도 대통령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총선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통령 관련 질문을 하면 유권자가 헷갈린 답변을 할 우려가 생기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 토론회를 연 데 대해 선관위원장이 우려 성명을 내지 않은 것도 논란인데.

“그런 성명을 내려면 중앙선관위원 9명의 의결이 필요한데, 위원회에서 의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자유 토론 과정에서 안전에 울리지 않기로 정리했기 때문이다.”

-양면식 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가보다 낮은 공사가격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는데.

“위법이 명백해 고발하고 투표소에 그 사실을 공고한 것이다. 8억원 대출금 기록을 누락한 혐의로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역시 고발 등 같은 조치를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명백한 위법은 여야 안 가리고 다 고발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투표소 대과 반입을 금지한 조치도 논란이 됐는데.

“‘대과 들고 투표장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문의가 들어와 검토한 끝에 ‘투표소에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반입 금지를 결정한 거다.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대과 들고 투표소 찾는 이들이 있을 듯하니 통일된 지침을 주지 않으면 현장 관리관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해 그런 지침을 하달했다. 이게 언론에 새 나가지 민주당 조정식·박주민·김영호·김영배 의원 등이 방문해 항의하며 ‘본 투표 때도 (대과 반입) 막을 거냐’고 묻길래 인성을 좀 높였다. ‘당연하죠. 투표소에서 절대 정치적 표현 행위는 안 됩니다. 일제 삼푸·초밥, 이런 거 절대 안됩니다’고 하니 아무 말씀들 안 하시더라.”

-전임 사무총장 차장 경질을 부른 특혜 채용을 일소할 방안은.

“선관위 조직이 작다. 시군구 위원회는 7~9명에 불과하고 선거 때 집중적으로 함께 근무하는 데다 인사 범위도 근교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 정실이 개입되기 쉬운 구조더라. 그래서 적어도 사무관 이상 직원들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인사하는 걸 상례화하고 (인사비리) 징계도 다소 약했던 측면이 있는 듯해 강화할 생각이다.”

-특혜채용 등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며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선관위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는데 사무총장 부임 직후 ‘현재가 선관위 편을 들어줄 것’이라 말해 논란이 됐다.

“선관위가 감사원, 즉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 순간 헌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현재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안된다고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6월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

-그럼 비리의혹을 어떻게 감할 것인가.
 “감사관을 외부 개방적으로 개편했다. 지난 1월 1일자로 판사 출신 임정수 변호사가 취임했다. 감사위원회 역시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했고, 사무처 소속이던 감사과를 위원회 직속으로 독립시켰다. 감사 실무 직원들도 따로 뽑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적정 인원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강찬호 논설위원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무료 상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https://www.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이재명 “윤 대통령 만나 총선민심 전달, 정치 복원 기대”

대통령실, 영수회담 실무협상 취소 야당 “일방적 취소, 다음 일정 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둘째)와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최고위원.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경청 의사를 밝혔지만, 회담 실무협상을 두고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신경전이 전개됐다. 이날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던 양측 간 실무협상이 무산되면서 회담 날짜도 결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한 오섭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만나 회담 일시와 의제 등을 조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무협상 진행 시점에 정무수석이 홍철호 전 의원으로 교체된다는 발표가 예고됐다. 이에 한 수석은 신임 정무수석이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민주당에 양해를 구하고 실무협의를 취소했다고 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한 오섭 수석이 연락해 와 수석급 교체 예정이란 이유로 (만남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 회동 일정에 대해서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오늘(22일) 연락드려서 내일 바로 천준호 비서실장을 만나 뵙도록 하겠다”고 전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회담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싼 물밑 살

바싸움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ں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회담 의제를 두고 장외 압박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유가가 오른 최근 상황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지난해 황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황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직후에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번에 만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체도 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민

주당 지도부는 여당을 향해 특검 수용도 압박했다. 22일 정청래 최고위원은 “영수회담의 성공 조건은 이재명양주(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수사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주거조작 의혹)”라며 “이 다섯 가지 사안을 영수회담에서 눈감은 채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과 야당 간 대화 물꼬가 트인 점은 높이 사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성일중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돈이 풀리면 경제에 굉장하 큰 후유증이 올 것”이라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적었다. 김기정·정용환 기자

윤재옥 “비대위장 안 맡겠다”… 토론 끝 “비대위장 추천은 말아”

여당 새 원내대표 내달 3일 선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당내 요구는 고사했다. 비대위 성격이 전 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인지, 총선 반성을 위한 혁신형인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인총회를 열었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총회다. 차기 지도부 구성 방안이 토론 주제였다.

당초 비대위원장 취임이 유력했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토론 전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든, 관리

형 비대위를 꾸리든 나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없다”며 “다음에 선출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새로운 분을 구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의 2인자였던 그도 총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당 일각의 여론을 의식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이다.

이후 토론은 순탄치 않았다. 총회를 앞두고 이날 오전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은 “우리는 통렬한 성찰과 쇄신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청한다”며 “혁신형 비대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에도 수도권 낙선자들은 윤 원내대표를 만나 혁신을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총회 도중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안철수 의원과 인요한 당선인(왼쪽)이 인사하고 있다. 뒷줄 왼쪽 둘째는 김은혜 당선인. [뉴스1]

리형 비대위”로 의견을 모았던 1차 총회와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중진들은 대체로 관리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5선

이 된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에게 “혁신형이든 관리형이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비대위는 가급적 짧은 기간 운영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 지도부가 당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4선에 성공한 김태호 의원도 “관리적 의미에 초점을 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혁신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대를 준비할 외부 인사를 데려오기 쉽지 않다는 회의감이 깔린 반응이다.

그러는 사이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빠지겠다는 윤 원내대표의 뜻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옥신각신 끝에 새 비대위원장은 윤 원내대표가 추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비대위원장은 윤 원내대표가, 나머

지 비대위원은 새 원내대표 선출 후 비대위원장이 뽑는 어중간한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수도권 힘지 낙선자들은 22일에도 내부 비판을 쏟아냈다. 윤상현 의원이 개최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에서 이승만 전 서울 중랑을 후보는 “선거 기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과 중도층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며 “국민들 눈에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수 전 인천 서구갑 후보는 “선거 기간 우리 당에는 30·40세대의 마음을 살 뉴스가 하나도 없었고, 수도권에서 뛰는 입장에서 너무 갑갑했다”고 했다.

심세롬 기자

민주, 더민주와 합당 돌입…김남국 복당 수순

‘코인(가상화폐)’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의원이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결의 및 수임기관 지정과 관련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당무위원회 안건이 처리의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당무위는 오는 24일 열

리고 24~27일 권리당원들의 토론 게시판을 당에서 운영할 것이다. 28~29일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30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려 의결될 경우 5월 2일 합당 수임기관합동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3일 전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운영팀 더민주 공동대표도 같은 날

제7차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당 여부에 대해선 “21대 현역 의원 임기가 남았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김 의원은)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60억 이상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 전량 인출하며 보유 및 투자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탈당 이후 9개월간 무소속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총선을 3주 가량 남긴 지난달 더민주에 합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에 소속된 정당 당선인들은 이주 내로 당 윤리위원회를 거쳐 당적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이다.

한지혜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리쓰버그 싱글홈 **레스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립턴 싱글홈**

\$1,110,000 **\$426,000** **\$580,000** **\$84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중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제조업 부진, 깊어진 40대 고용불안... 취업자 9년째 감소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니 엔데믹 영향 2022년만 소폭 상승 지난 10년간 취업자 수 9.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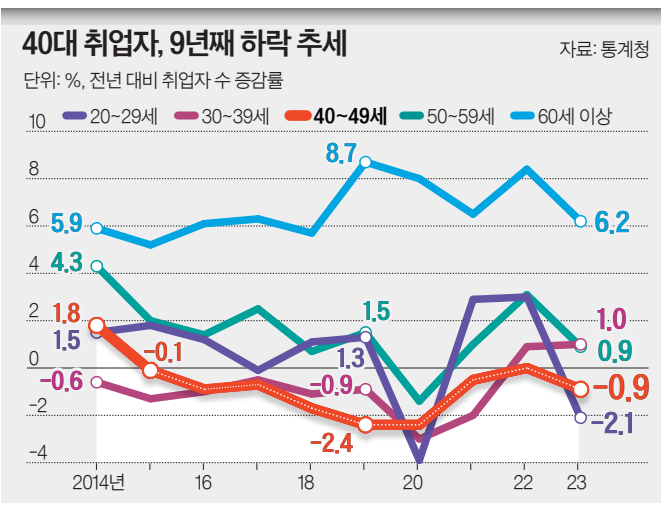
한때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했던 40대가 이제는 고용시장의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40대는 10년 전과 비교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인구 감소율보다 취업자 수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 40대가 주로 종사하는 산업군의 부진과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 증가, 고학력자 비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풀이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연도별 취업자 수 증감률(전년 대비)을 분석한 결과 40대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이 컸던 2022년에만 소폭(전년 대비 0.05%, 3000명) 상승하며 반짝 마이너스 상황을 탈출했다. 40대와 유사하게 장기간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30대는 2022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다.

취업시장에서의 위상도 바뀌었다. 2005~2019년까지 전 연령대 중 가장



지난 17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달서구 중장년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해 오던 40대는 2020년부터 1위 자리를 50대에 내줬다. 지난해엔 60세 이상 취업자 수(622만3000명)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 서면서 40대 취업자(626만 명)를 위협해 오고 있다. 한마디로 고용시장에서 40대 위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영향에 따른 인구 감소 영향이 있다. 실제 50대 취업자가 40대를 앞지를 수 있었던 건 2018년부터 50대 인구가 40대를 추월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인구 감소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지점이 있다. 40대의 경우 지난 10년간(2014~2023년) 취업자 감소율(9.2%)이 인구 감소율(8.7%)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 중 인구 감소율(13.4%)이 가장 높았던 30대의 경우 취업자 수가 7.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문가는 해당 연령층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군의 경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 과장은 "40대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는데 그간 해당 산업군의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기자총협회의 '신고용취약계층 40대의 고용 흐름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과 비교해 4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만4000명 감소했다. 단순 비교하면 10년간 줄어든 40대 취업자 수(약 64만 명)의 약 4분의 1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40대는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소득이 제일 높고, 생산활동도 가장 활발한 시

기였는데 이제 고용시장에서 옛날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대에서처럼 여성의 약진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2022년부터 30대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로 반전된 건 여성 취업자가 견인한 영향이었다. 남성 취업자가 2년 내리 감소할 때 여성은 2022년 6만2000명(전년 대비), 2023년 9만2000명 늘었다. 비혼·만혼 등으로 출산·육아 시기가 늦어지면서 고용시장에 남아 있는 30대가 늘어난 까닭이다.

하지만 40대 여성은 같은 기간 6000명, 1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육아 부담이 기존 30대에서 40대로 옮겨가면서 2022년부터 40대 경단녀가 반드리는 추세다. 일각에선 평균 은퇴 연령이 49.3세로 앞당겨진 가운데 고학력 비중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40대 인구 중 대졸(전문학사) 이상 비중은 63.5%로 2014년에 비해 18.6%포인트 늘었다.

경총은 앞선 보고서에서 기간제 고용기간 연장, 유연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유형의 근무 방식을 도입해 40대 비경제활동인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이우림 기자

음식·숙박업 5년간 사망 중대재해 24명, 소상공인들 불안감 커진다

정부 '재해예방 예산 편성' 지침 현장 "월세·인건비도 벼락" 불안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소규모 숙박·음식점업 사업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숙박·음식점업은 건설·제조업에 비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최근 5년간 20명이 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숙박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펜션에서 일하던 A씨는 2022년 10월 안전모 없이 이동식 사다리 위에 서서 바비큐장 지붕을 청소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객실 청소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호

텔 지하 침구류 보관실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식당 등 음식점업에선 같은 기간 13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2022년 9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숨진 B씨는 깎두기 양념을 배합하는 기계를 작동하다가 고무장갑이 끼여 밀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일상에서도 중대재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업종별 사업장 안전

보건 가이드'를 배포해 소규모 숙박·음식점업일지라도 핵심 의무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중처벌법 준수 사항과 처벌 조항이 대기업 기준에 맞춰진 만큼 자신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당초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벌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무

산됐다.

인천에서 직원 10명의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고물가에 당장 월세랑 인건비를 내기도 벅거는데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최근 중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전원재판부에 넘기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세종=나상현 기자

정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의료계에 '자율 조정안' 수용 요구 의과대학협은 "휴학 승인 불가"로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증원 규모를 각 대학별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자율 조정안에 대해서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자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틀린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자율 조정안)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의료계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소에 출연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정부의 자율 증원에 대해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비판하며 "전공의들, 교수들,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 접어들면서 이들이 실제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올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난달 25일 사



'환자는 기다리는 중' [서울=연합뉴스]

직서를 낸 일부 의사들의 경우, 한 달이 되는 기점에 사직 효력이 나타날 것

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사직서 수리를 위한 형식적 요건에서도 잔류된 게 없어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생의 휴학 승인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21일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생 불이익 최소화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황수연·채혜선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패드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MD 락빌 301-881-1000
MD 엘리트 시티 410-715-3500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한강 기적 끝났나... FT “저출산·신기술 취약” 또 한국 위기론

**“값싼 에너지·노동력 기반 성장 한계”
떨어진 생산성, 정치 불안 문제 등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원인으로 분석
최상목 “기적 안 끝나”... 위기론 반박**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에 의존한 한국
식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기존의 성
장 모델이 더 이상의 혁신을 만들지 못
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과 자살률 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
의 기획 기사에서 정부가 300조원 규모
의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

자하기로 한 결정이 한국식 성장 모델
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FT는
그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 보도를 내놨었다.

FT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
의 국내 투자(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 대다수 전문가는 이런 투자가 기
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전통적 성장 동력
인 제조업과 대기업 부문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일
부 학자는 정부가 기존 모델에 대한 개
혁을 내켜 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
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
이다.

FT는 그간 한국식 성장 모델을 뒷받

침했던 두 기둥인 값싼 에너지와 노동
력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저렴한 한국의 전기요금에 일중
의 제조업 관세 보조금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독점 제공한 공기업 한
국전력이 1500억 달러(약 206조원) 부
채에 빠졌다고 썼다. 또 “한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37개 회원국 중 그리스·칠
레·멕시코·콜롬비아뿐”이라고 했다.

FT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그간 미국이 발명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강점이 있
었지만, 새로운 ‘기반 기술’을 개발하
는 것에는 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FT
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선정한 120개 중
점기술 중 36개 분야가 세계 1위를 차지

했었지만, 2020년에는 이 숫자가 4개로
줄었다고 썼다.

저출산도 한국 경제를 어렵게 바라
보는 부분 중 하나다. FT는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22년과 비
교해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에 35% 감
소하면서 GDP는 28% 낮아질 것이라
고 분석했다. 또 FT는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집권의 행정
부로 정치적 리더십이 분열되면서, 다
음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적어도 3년
이상 정국이 교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FT는 주요 대기업의 3세 경영체제
로 전환하면서 과거 배고픔에서 시작
한 ‘성장 사고’가 안주에서 비롯한 ‘현
재 유지 사고’로 흘러가고 있다고도 짚

었다.

다만, FT는 이러한 한국 경제 비관
론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한
국과 달리 첨단 제조업을 포기했던 많
은 서방 국가가 후회하고 있으며, 미·중
간 기술 경쟁도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
이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반도체·배터
리·바이오 기업들의 서방 시장 진출이
제한될 경우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
고, 양안 갈등에 따른 안보 우려로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FT에 “한국인 DNA에 역동성
이 내재해 있다”며 “경제적 역동성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정책을 재설계할 필
요가 있지만,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기자**



22일 지구의 날... 빨라지는 기후위기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 수소총선소 인근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가 5년91일을 나타내고 있다. 기후위기시계는 온난화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민희진 ‘뉴진스 소속사 경영권 탈취’ 공방

(어도어)

**하이브 “민, 독립 시도” 사임 요구
민희진 “하이브 언론플레이” 반박**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인 하이브와 산
하 레이블 어도어 사이에 갈등이 불거
졌다. 어도어는 K팝 간판 걸그룹 뉴진
스의 소속사다.

하이브는 22일 어도어에 대한 감사
에 들어갔다. 어도어가 하이브에게서
독립할 계획(경영권 탈취)을 올해
초부터 세운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부대표 L씨 등에 보낸 감사 질
의서에는 어도어 경영권 탈
취 모의 내용, 사업상 비밀
유출, 인사청탁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상대
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민 대표의 사
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어도어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
고 이번 사태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산하 레
이블 빌리프랩이 지난 3월 데뷔시킨
여성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헤
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등 모
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
하고 있다’면서다. 민 대표
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
화에서 “경영권 탈취 시
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2021년 방시혁 의장이 이
끄는 하이브가 자본금 161억 원을 출자
해 만든 회사로, 지난해 매출액 1102억
원, 영업이익 335억 원, 당기 순이익 265
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민 대표는 지난
해 콜롬비아(주식)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 현재 어도어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 소녀시대·샤이니·엑소 등
의 브랜딩을 총괄했던 민 대표는 2019
년 하이브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하이브와 어도어 간 경영권 갈
등이 드러나면서, 하이브 주가는 22일
7.81%(1만8000원)하락한 21만2500원
으로 장마감했다. **황지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걸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 때문에
개혁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된다.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
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하자 민주당
은 특위 일정을 서둘러 21대 국회 임
기 내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이
런 방향이) 민주당의 오랜 연금 철학이
기도 하다. 결국 국민이 소득 보장과 재
정 안정의 균형점을 찾는 게 필요하
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영해

야당 “연금개정안 입법 속도” 여당 “논의 더 해야”

연금개혁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
장했다.

김 의원은 재정 안정 측 전문가들이
1안을 두고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약
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
해 “특정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말
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며 “어떻
게 합리적으로 나누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성세대는 국가로
부터 수당·보조금 등 지원을 받아온 적
이 없다”며 “그런 혜택은 나이 든 세대
들이 만든 것인데 ‘부당하다’ 불공정
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다음 세대에
는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것”

**여야 입장차, 국회 처리 난항 예상
야당, 대통령에 협조 요구하면서
“1안이 꼭 정답 아니다” 한발 후퇴
여당 “전체 연금체계 개편이 먼저”**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설문조사 결과가 공
개된 뒤 별도의 입법 발표를 통해 21대 국
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
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 의
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안이 정

답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 “둘 중 하
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
니라 소득보장론과 재정 안정화 두 가
지 모두 추구할 균형점을 만드는 게 국
회 역할”이라고 했다.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연
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사
학연금 등 전체 연금 체계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이 선행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
의힘 의원은 “2, 3차 연금개혁특위는
연금 구조개혁을 주요 의제로 하고 그
를 바탕으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는 것을 주 목적으로 잡았다”며 “논의
결과를 보면 그 목적이 잘 다뤄지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공론화 논의
를 바탕으로 부족한 구조개혁안을 논
의해 그에 따른 모수개혁안(보험료·소
득대체율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을 도
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 논의 틀에서 모
수개혁을 진행해야 하는데, 모수개혁
이 먼저 논의되었다. 보험료율 1%포인트
차이로 소득대체율이 10%포인트 별
어지는 식의 모순적인 두 가지 안이 (공
론화위원회에) 동시에 상정된 게 납득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고급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대표번호: 888-756-7549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청년들 “우린 더 내고 못 받을 것... 미래세대 외면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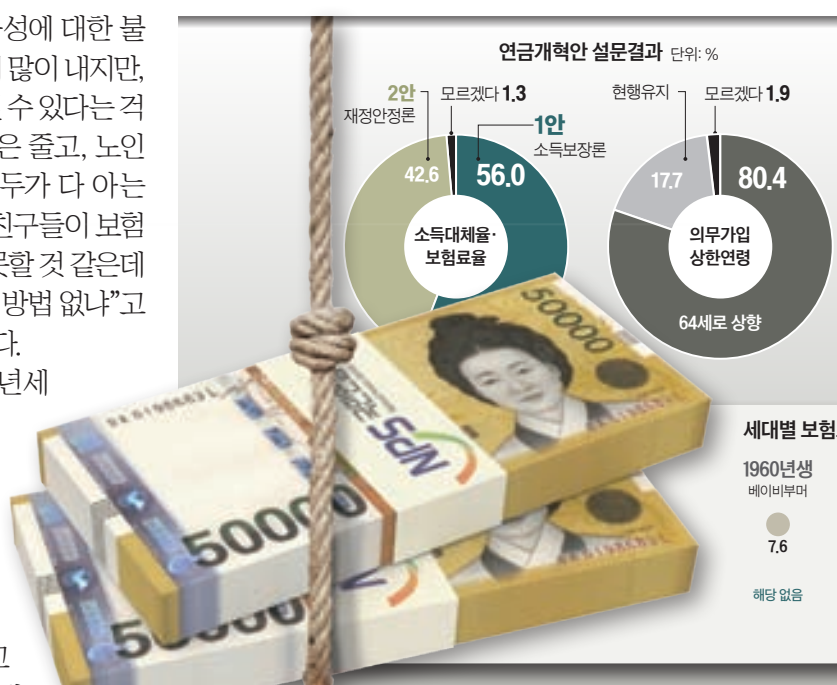
시민대표 선택 국민연금안에 반발
“저출산·고령화 안 봐도 뻔한데...”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반문도
일각선 “고갈 안 되면 청년도 혜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편안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선택된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6년 늦춰진다. 2030세대는 22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우리는 노인이 될 텐데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청년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편안은 미래세대를 외면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숙명여대 김민경(23)씨는 “더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미래세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는 미래에는 연금 수입 인구는 늘어나지만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도 나온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지만, 연금은 못 받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김씨는 “청년층은 줄고, 노인층은 더 늘어나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직장인 친구들이 보험료 많이 떼간다. 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는 방법 없냐”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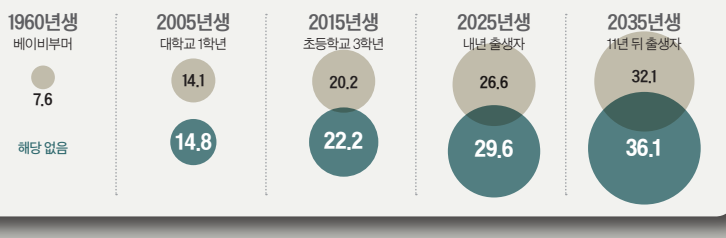
연금개혁과 관련, 청년세대 입장을 전파해 온 김철(32) 연금유니온 집행위원장도 “2060년 이후에 우리 세대가 연금을 받게 될 때, 높은 보험료율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그는 “현재 세대부터 보험료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다”면서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의 효과가 상쇄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어 “이만큼 내니까, 그만큼 받아야 한다”는 게 당연한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1인 적용 시 어떻게 달라지나

항목	현재	1인 소득 보장론
보험료율(%)	9	13
소득대체율(%)	40	50
기금고갈 시기	2055년	2061년
2093년 누적적자(원)	-	702조 증가
최대 적립금(원)	1299조	1725조
기금소진 후 최대 필요보험료율(%)	34	43
내년 신생아 생애평균 보험료율(%)	-	29.6

세대별 보험료율 비교해 보니 단위: %



서도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점에서 1, 2안보다 더 많은 선택자가 공론화위원회에 제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안이 ‘더 내고 더 받자’, 2안이 ‘더 내는데 그대로 받자’로 제시됐

는데, 심리적으로는 ‘더 내면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견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혁이 아닌 미루는 결정을 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향후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면, 이번 안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경

북대 김주영(21)씨는 “추가적인 개혁 조치가 이뤄져 국민연금의 생명이 계속 연장된다면 어른 세대뿐 아니라 청년 세대도 국민연금 혜택을 더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며 “미래에 ‘더 받게 하는’ 국민연금이 청년 세대를 보듬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시민대표안대로 가면 국고 투입해야 “개약 넘어 대참사 수준” 지적도

공론화위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
보험료 9→13%, 소득대체 40→50%
2061년 고갈, 93년 적자 702조 늘어
“재정안정 역할, 후대 부담날 것”
연금특위, 21대 국회내 합의 추진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 속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김상균(서울대 명예교수) 공론화위 위원장은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들은 4회 토론회를 열었고 지난 21일 4차 토론회 후 두 가지 개편안 중 하나를 선택했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건 1안이다. 보험료율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으로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 9%에서 12%로 올리고 대체율은 현행(40%)대로 유지해 재정 안정에 집중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회기(내달 29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1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은 지지하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시민대표 토론회에는 1, 2안 전문가가 참석해 취지를 설명했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전에는 2안 찬성이 높았으나 뒤집어졌다. 공론화 방식의 연금개혁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금개혁 같은 난해한 과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3차 토론회에서 “시민대표단이 보다 확실한 자료를 학습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 전문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대표는 4차 토론회에서 “두 안의 지표들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2안은 2062년으로 늦춰진다. 보험료도 각각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별 차이가 없는데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크게 차이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한데도 혜택은 1안이 훨씬 커 보인다. 1안 찬성이 높게 나온 배경이다. 1안의 목적은 연금액 올리기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가입 기간이 20.3년에 불과해서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효과가 40년 후에 나타나고, 정규직 고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

득의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양 교수는 “1안이 재정 안정에도 역행해 후세대 부담만 더 늘리는 개편안”이라며 “연금을 늘리려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딧(가입기간 추가 인정제도) 확대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702조원 늘어난다. 2안은 1970조원 줄어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 이번 공론화 토론회 자료집에는 누적적자 차이를 담지 않았고 전문가 설명으로 그쳤다. 윤석명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안으로 개편하면 개약을 넘어 대참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지금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다. 2078년 소득의 최고 43.2%(2078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거나 2안대로 하면 35%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1안의 소득보장안으로 가면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에 세금을 투입하지는 뜻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 외에 기금 운용을 잘해 수익률을 올리거나 국고를 지원하는 게 많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면 위험자산 투자를 늘려야 해서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시민대표단의 80.4%는 국민연금의 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했다. 기초연금 개편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자는 데 대해 52.3%가 찬성했고,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더 지급하는 방안에는 45.7%가 찬성했다. 출산 크레딧 확대에 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57.8%가 찬성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논의 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고(68.3% 찬성), 보험료율(18%)을 올려야 하며(69.5% 찬성), 연금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자(63.3% 찬성)는 의견이 강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황수연·남수현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 세무 보고, 절세 전략, 세무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무 보고

- 50개 주 개인 세무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무 당감 신청

사업체 세무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무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대표 정희수
703.477.3114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서리핀
703.244.6526

- ★ 주택 매매(주거용, 투자용)
- ★ 상업용 부동산 매매
- ★ 법원 경매(Auction)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우리말 바꾸기

“밥 한번 먹자”의 띄어쓰기

다음 중 ‘한 번’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언제 밥 한번 먹자
 ㉡ 한번 해보겠습니다
 ㉢ 너 말 한번 잘했다
 ㉣ 한번만 봐주세요
 한국인의 빠른 거짓말 1위가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한다. 이를 글로 적는다면 ‘한 번’을 붙여 써야 할까, 띄어 써야 할까? 먼저 정리하면 ‘한 번’은 기회를 뜻하고, ‘한번’은 횟수를 의미한다.
 ㉠ “언제 밥 한 번 먹자”에서는 기회를 뜻하므로 ‘한 번’으로 붙여 써야 한다. “시간 날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언제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도 이런 경우이다. ㉡ “한 번 해보겠습니다”는 시도를 의미하므로 ‘한 번’을 띄어 써야 한다. ㉢ “너 말 한번 잘했다”도 강조를 나타내므로 ‘한 번’으로 붙여 써야 한다. “좀 한번 잘 춰다” “공 한번 잘 찬다”도 이런 예다. ㉣ “한 번만 봐주세요”에서는 위 예들과 달리 횟수를 나타내므로 ‘한 번’으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횟수를 나타낼 때 띄어 쓰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답은 ㉠.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 더. ‘다시 한번’ ‘다시 한번’은 어느 것이 맞을까? 이에 대해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국립국어원은 2015년 의미 구별 없이 붙여 쓰는 것으로, 즉 ‘다시 한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MZ도 모르겠는데 알파를 배우라고?



진성철
 LA중앙일보 경제부 부장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태생으로 모두 21세기 출생자다. 그들은 아날로그를 아예 모르는 디지털 온리 세대인 데다 완전한 온라인 세대로 규정된다.

알파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달고 살며 그들에게 디지털과 온라인 세상이 평범한 일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Zoom을 통한 화상 수업 및 미팅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느껴지는 세대. 또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인 관계가 소수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들에게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도 친숙하다. 메타버스 속에 아바타를 만들어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를 사귀며 소비도 즐기는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다. 메타버스 속 가상 아이템 구매에 돈을 쓰며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등 메타버스와 실생활이 하나로 융합한다.

알파 세대의 선두 그룹은 이제 중학생이 됐다. 아직은 경제활동에 나설 연령층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인 밀레니얼 세대를 알면 알파 세대의 성향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의 가치와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 경험을 중시한다. 또한 강한 가족 중심의 성향을 보인다. 밀레니얼 부모는 자녀와 함께 경험하는 것을 좋아해서 여행, 쇼핑, 놀이 등을 함께 한다. 밀레니얼 세대가 온라인 쇼핑을 즐긴다는 알파 세대도 주된 쇼핑 채널은 온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인 부모의 경험 중시 영향으로 오프라인 소비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업들은 알파 세대 고객을 확보하려면 온·오프라인, 모바일(소셜미디어 포함)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쪽에만 치우친 마케팅을 해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알파 세대는 대부분 외동이라 부모를 넘어 조부모의 관심도 한 몸에 받고 자라 자신을 셉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가치 소비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일부 기업의 임원들은 MZ도 잘 모르는데 알파 세대까지 알아야 하나고 푸념한다. 하지만 5년 후 5조4600억 달러에 이르는 알파 세대 시장을 잡으려면 이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10년 내 알파 세대가 전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10년 안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알파 세대를 알아야 하는 이유다.

열린광장

4자 타령



윤경중
 연세목회사회 중경회장

의 운명을 지닌 듯 우주, 자연, 인생, 철학, 종교, 운동 할 것 없이 온갖 분야에 활개를 치고 있다.

도교에서는 도(道), 천(天), 지(地), 및 왕(王)을 우주에 있는 가장 큰 것이란 뜻에서 ‘사대(四大)’라고 한다. 유교에서는 주역이 밝힌 네 가지 원리 곧, 원(元, 봄), 형(亨, 여름), 이(利, 가을), 및 정(貞, 겨울)이 ‘사덕(四德)’이다. 세상이 생겨나서 다시 없어질 때까지의 네 시기를 불교에서는 ‘사겁(四劫)’이라고 말한다. 반복하는 마음을 두지 말고, 물욕이 서로 가리게 하지 말고, 헛말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말고, 그리고 한울림을 속이지 말 것, 이 네 가지를 천도교에서는 ‘사계명(四戒)’이라고 일컬으며,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는 논어의 교훈을 ‘사물(四勿)’이라고 일컫는다.

어디 그뿐이라. 삶의 기본이 되는 네 가지 계획, 곧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한 해의 계획은 봄철에,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또한 한 집안의 계획은 화목함에 있다는 말을 ‘사계(四計)’라고 일컫고, 품성이 군자와 같이 고결하다는 뜻에서 매화, 난초, 국화 및 대나무, 이 넷을 ‘사군자(四君子)’라고 말하며, 누구에게나 좋은 열골로 대하며 무사태평하게 사는 사람을 ‘사시춘풍(四時春風)’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태극기의 4괘 생각이 떠올랐다. 본디는 사괘(師卦)를 건괘와 감괘로 나눈 것이었는데 태극기의 네 괘에 건(乾), 곤(坤), 감(坎), 이(離)를 그렸고 이를 4괘라고 부른다.

아무튼 4자는 이래저래 매력 있는 숫자임이 틀림없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4월 30일 취임 연설에서 “자유와 신성한 보존과 공화당 정부의 운명은 미국 국민이 실천한 삶의 경험에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유명한 말을 남겼다.

4월은 재미있는 달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한 해의 네 번째 달이지만 영어 이름 ‘April’은 라틴어의 낱말 ‘열리다 (aperire)’에서 왔다. 이름처럼 4월엔 겨울에 움추렸던 동물들이 기지개를 켜고 초목들은 푸르게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다. 모두 다 새로운 삶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4월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달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4자의 발음이 한자의 ‘죽을 사’와 같다는 이유로 아파트나 병원, 호텔 엘리베이터 등에 잘 쓰지 않는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참 엉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로 소리 나는 좋은 글자가 흔한 데도 말이다. 이를테면 ‘승사’, ‘향기 좋은 사’, ‘생각할 사’, ‘부지런할 사’, ‘말씀 사’, ‘춤추는 모습 사’, ‘벼슬 사’ 등이다. 이처럼 좋은 글자의 소리는 제쳐 두고 하필이면 ‘죽을 사’지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 인생의 종말을 뜻하는 운명적인 글자의 소리라.

하지만 이 4자는 아무 거리낌 없는 사통오달

SK PEST Management LLC
BED BUG
빈대퇴치! ELIMINATE!
 more ▶ www.sk-pest.com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 skpmva@gmail.com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Since
1996

의료비 나눔 사업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CA와 NJ 지역의 CMM 회원은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vel 내용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unit	\$ 195	\$ 150	\$ 90	\$ 45
2units	\$ 365	\$ 290	\$ 180	\$ 90
3units	\$ 485	\$ 430	\$ 270	\$ 135
의료비 지원범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예방검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입원, 수술	입원, 수술
본인 부담금	\$500 /년	\$500 /건	\$1,000 /건	\$5,000 /건

* 모든 Level에서 질병당 \$150,000까지 지원합니다.

11/2023 기준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773-777-8889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CMM기독교의료상조회는 로고스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501(c)(3)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이며,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유사 단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이러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윈더플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5월 그리스&터키 *산토리니 옵션
지중해의 핵심 두 나라 그리스와 터키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
10박11일 5/6~5/16 \$2,890+항공

5월 스페인&포르투갈 *마감 임박
10박11일 5/7~5/17 \$3,190+항공

5월 파노라마 서유럽 *연행 상품
정통 서유럽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를 더했습니다.
12박13일 5/21~6/2 \$3,890+항공

6월 스위스 알프스 *마감 임박
자연이 만든 웅장한 알프스와 환상적인 자연을 품고 있는 스위스 일주
8박9일 6/18~6/26 \$3,990+항공

6월 북유럽 4개국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들로 구성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0박11일 6/28~7/8 \$5,290+항공

6월 캐나다 록키 \$2,290 (항공포함)
5박6일 6/30~7/5 (독립기념일 특선) *마감
8/14~8/19 (여름방학 특선)

8월 알래스카 일주
마타누스카빙하, 콜럼비아대빙하, 엑시트빙하 모두 볼 수 있는 기회!
6박7일 8/15~8/21 \$2,990 (항공포함)

9월 영국일주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
11박12일 9/2~9/13 \$5,890+항공

9월 정통 서유럽 \$3,490+항공
10박11일 9/10~9/20 *마감 임박
10/9~10/19 *마감 임박

윈더플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 고 윤태웅

이달의 추천투어
4월말까지 디파짓 \$100/인 off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9/18~10/1 \$4390+항공

그리스 & 터키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9/25~10/5 \$2,890+항공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마감
4/22~5/05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마감
4/22~4/30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마감
4/24~5/0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마감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마감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4390+항공 *마감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마감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마감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마감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마감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마감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9일 \$3990+항공 *마감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마감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마감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항공포함) *마감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마감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마감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마감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항공포함) *마감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990(항공포함) *마감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마감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마감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마감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마감
9/18~9/26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마감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마감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마감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마감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990+항공 *마감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마감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마감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마감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마감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마감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마감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마감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인사이드) *마감
10/22~10/31 터키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외) 9박10일 요금문의 *마감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마감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요금문의 *마감
11/12~11/25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14일(사내선) \$3980+항공 *마감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11일 \$2980+항공 *마감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5일 \$1190+항공 *마감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마감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마감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마감

2024 크루즈 여행

Royal Caribbean Vision of the Seas

알래스카 \$1990~부터 (인사이드,항공포함) 8/30~9/6 7박8일 *마감 임박

뉴잉글랜드 \$1190(인사이드) 10/17~10/26 9박10일 *마감 임박

남부 카리브해 \$1390(인사이드) 12/7~12/19 12박13일 *마감 임박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 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11일 \$2990+항공

1차 4/16~4/26
2차 6/18~6/28
3차 9/24~10/4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특선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4일 대만 \$499+항공
3박4일 싱가포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8박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TMCI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강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여 100만원/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원태수병원(세브란스/강희대) 검진

메모리얼 데이 특선

천섬, 몬트리올, 퀘벡 레이크조지
3박4일 5/24~5/27 \$899

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2박3일 5/25~5/27 \$650

롱우드 가든
당일투어 5/25 \$159

뉴욕 특선
1박2일 5/26~5/27 \$450
디럭스 호텔, 브루클린 담보, 베슬, 허드슨 아드 엠티 전망대, 스테이크 특식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섬/몬트리올/퀘벡 플라츠버그/뉴욕
5박6일 \$1350 *일출발
대행버스 출발: 4/22, 6/24, 7/22, 8/5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4일 \$899 *일출발
대행버스 출발: 7/8, 9/23, 10/21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9일 \$1450+항공 *일출발

서부 4대 캐년 5박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4일 \$95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일출발

성극 **대니엘** \$199
5/16(마감), 5/30, 7/11, 8/1

토요 특선 당일투어

네츄럴 브릿지+사파리 5월4일 \$125

노퍽 보타니컬 가든 7월20일 \$109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3일 \$650 *일출발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1박2일 \$399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성급한 결론 대신 대안 고려 훈련해야

비판적 사고력 개발 방법
대학 입학 능력 시험중 하나인 SAT는 일종의 IQ테스트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는 다른 관점에서 마련된 시험이다. 실제 고교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의 암기력이 아닌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흔하지 않다. 그래서 과목 이름이 그냥 영어로 불렸지만 심층 독해(Critical Reading)라고도 불렀다. 그러면 미국의 대학들은 왜 심층적인 독해 능력을 요구했을까. 심층 독해는 실제 비판적 사고 능력과 관련이 있다. 독서를 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내용을 분석해야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고교에서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심층적인,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몇 가지 방법을 찾아봤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고 방식
가정에 질문부터 던져야 가능
비판적 사고 클럽도 시작해야

아직 성인도 안된 고교생들에게 심층 사고(Critical Thinking)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많다. 대학 수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세계관을 접하며 관심 있는 학문 분야에서 스킬을 연마한다. 자녀들은 고교에 재학하는 동안 비판적 사고 능력자가 됨으로써 대학 생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심층 사고)란 무엇인가
학생들은 때때로 비판적 사고를 설명하고 정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버지니아 주립 대니얼 윌링햄 교수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2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가 신문 논평을 읽은 후 작가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을 완료할 때 예리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고교에서 비판적 사고 클럽을 시작하는 것도 심층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빙타컴 copilot생성)

서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갖고 있다. 도메인 간의 이러한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실험을 수행하라(Conduct Experiments)
과학 과정의 일부로 실험실 과제를 완료하는 고교생은 실험에 익숙하다. 실험을 비판적 사고 과정을 구성하는 수많은 정신 과정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실험에는 답을 찾는 것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해야 한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습관 대신에 대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가정에 질문을 던져라(Question Your Presumptions)
고교생들은 대부분은 사물에 대해 무지하다.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개념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

이 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형성되는 추정을 갖고 있다. 비판적 사상은 교사나 정치인과 같은 지도자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도전한다. 권위주의자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루기 편하다고 보고 매우 좋아한다.

▶비판적 사상이 쓴책 읽기
규범에 도전하는 책을 읽으면 고교생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자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지식은 지속적으로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과 티칭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도서인 헨리 퍼킨슨(Henry Perkinson) 같은 작가의 '목표 없는 교사, 목적 없는 학생'(Teachers Without Goals, Students Without Purposes)이 도움이 된다.

장병희 기자
▶3면 '사고력'으로 이어집니다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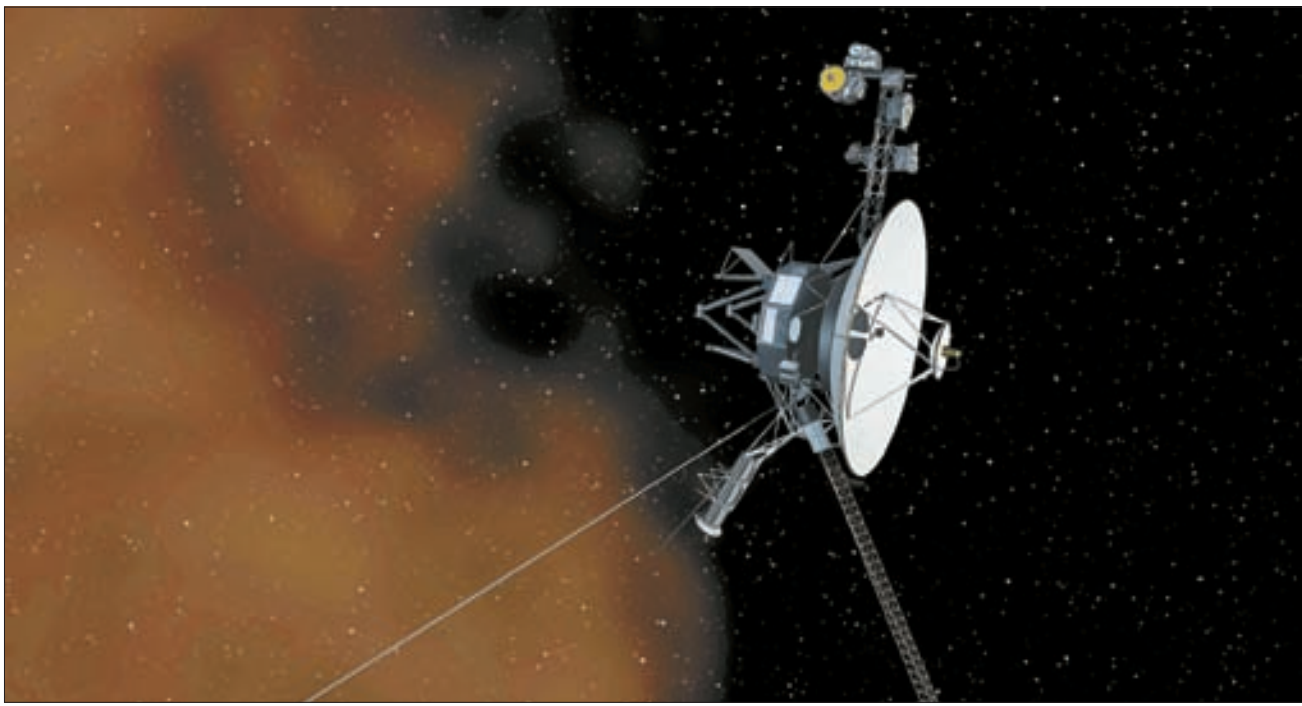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erri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는데 성간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중국 작가 류츠신은 소설 『삼체』를 통해 2015년 아시아 작가 최초로 SF 소설계의 최고 상인 휴고상을 수상했다. 『삼체』는 최근 넷플릭스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고 있다(이하 스포일러 포함). 삼체의 주인공 예원제는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칭화대 물리학 교수인 아버지가 홍위병들에게 반동분자로 몰려 광장에서 매 맞아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후 예원제는 내몽골 지역의 수용소로 끌려가 강제노역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수용소 근처에 있던 전파천문연구소의 관계자들은 예원제의 뛰어난 과학적 재능을 알아보았다. 전파천문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예원제는 곧 그곳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연구는 바로 외계 지적생명체 탐사, 영어로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그램이었다. 예원제는 태양이 일종의 전파 증폭기로 작동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인류의 존재를 알리는 전파 신호를 전 우주로 발송하게 된다. 이후 8년이 지난 어느 날, 예원제는 외계 지적생명체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면 너희 위치가 발각될 것이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하지만 우리 종족은 너희를 죽이러 갈 것이다. 그러니 제발 대답하지 마라.” 예원제는 문화대혁명과 같은 광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인류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예원제는 대답한다. “오라. 우리는 당신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구로부터 4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에 사는 외계 지적생명체, 삼체인은 우주 함대를 구성해 지구로 향한 450년에 걸친 침공을 시작한다. 참고로,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포함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탐사선 보이저1호는 1977년 9월 지구를 떠나 2012년 태양계를 넘어섰다. 2024년 현재 지구로부터 대략 240억 km까지 멀어졌다 [사진 NASA]

알파 센타우리는 3개의 태양으로 이루어진 삼체 항성계다. 삼체 항성계는 카오스 현상으로 인해 태양의 움직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극한의 생존 환경을 제공한다. 삼체인은 생존을 위해 새롭게 이주할 행성을 찾고 있었다.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는 물체
만약 450년 후에 인류가 멸망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450년 후는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먼 미래에 인류가 멸망하든 말든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일까. 반대로, 인류는 450년 동안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삼체인의 침공을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 450년 동안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보면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것을 두려워한 삼체인이

4광년밖 외계인 침공 그린 ‘삼체’ 450년 간 우주 여행해 지구 침공 실제로는 핵폭탄 로켓 써도 한계 빛 돛단배 우주선 아이디어 나와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을 방해한다.)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진 인류는 먼 우주로 나가 삼체인의 우주 함대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불행히도 인류는 그리 멀리 가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빨리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속도 제한은 인류뿐만 아니라 삼체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것은 삼체인이 지구로 오는 데에 450년이나 걸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워프 드라이브

브나 웜홀과 같이 공상과학(SF)적 아이디어를 제외하고 현재 인류의 과학 기술을 이용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핵폭탄 로켓과 빛 돛단배
거의 진공인 우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작용-반작용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질이나 에너지를 뒤로 방출하고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로켓이다.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인 로켓은 핵폭탄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크기의 우주선에 1메가톤급 수소폭탄 30만 개를 붙인 후 한 개씩 터뜨리면 대략 한 달 후에 광속의 10%까지 가속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주선은 대략 45년 후 알파 센타우리에 도

착할 수 있다. 사실 중요한 점을 하나 빼먹었다. 우주선은 도착지에서 감속을 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수소폭탄 중 질량은 감속할 때 써야 한다. 그렇다면 우주선은 대략 90년 후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우주선 속에서 자식을 낳고 살 수 있다면 손자 세대 즈음에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할 수 있다. 반면, 로켓은 우주선에 연료를 싣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우주선을 외부에서 밀어주면 어떨까. 처음 들으면 믿기 힘들겠지만, 빛은 바람과 같다.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큰 돛을 달면 우주선은 마치 바다 위 돛단배처럼 우주를 항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강력한 레이저를 우주선에 달린 큰 돛에 충분히 오랫동안 쬐어 주면 우주선은 원칙적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까지 가속될 수 있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가.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는 이미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2010년 일본은 태양 빛을 이용해 이카로스라는 돛단배 모양의 우주선을 금성까지 날려 보내는 임무에 성공했다. 사실 이미 태양계를 벗어난 우주선이 있다. 1977년 9월 5일에 발사된 보이저 1호는 35년을 쉬지 않고 날아 2012년 태양계 밖 성간 공간에 진입했으며, 다시 12년을 더 날아 2024년 현재 지구로부터 대략 240억 km까지 멀어졌다. 참고로, 보이저 1호는 아무 추진력 없이 관성으로만 움직이며 시속 6만 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 하지만 무지막지한 거리로 느껴지는 240억 km는 빛이 대략 하루 걸리는 거리에 불과하다. 알파 센타우리는 빛이 4년 걸리는 거리에 있다. 우주는 정말 너무 넓다. **박권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

김상현의 과학산책

언덕을 넘어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미적분학을 강의할 때 이야기이다. 100여 명이 수강하는 대형강의였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중간고사는 형식적인 시험 감독 속에 치러졌다. 세세히 감시하기에는 강의실도 너무 컸고, 학생들에 대한 나의 믿음은 더욱 컸다. 부정 행위같이 시시한 짓을 할 리가. 시험이 끝나고 채점을 거의 다 마쳤을 때였다. 아주 비슷한 두 답안지가 눈에

띄었다. 정답과 오답이 같은, 전형적인 의심사례였다. 이 경우 권장하는 대응은, 학과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공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었다.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일을 조용하게 넘기고 싶었다. 징계위원회에 넘어가는 순간 그 신입생들에게는 평생의 낙인이 남는다. 그래서 다음 수업을 시작하며 짧게 공표하였다.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 한



번의 실수로 오랜 후회를 갖게 하고 싶지는 않다. 수업 후 내게 고백하면 가벼운 벌칙으로 넘어가겠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 찾아오지 않으면 징계위

원회에 회부하겠다.” 수업이 끝나 손을 씻고 연구실에 갔더니 아홉 명의 학생이 복도에 한 줄로 서 있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넘도록 나는 하나 하나의 눈물 섞인 고해성사를 들어야 했다. 모든 사람은 근시안적인 편안함을 향하는 속성이 있다. 이 ‘게으름’은, 언덕에 놓여 있는 공처럼 동작한다. 가장 가파른 경사를 따라 내려가고 싶어하는 이치여서, 인공지능 이론에서는 ‘경사 하강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도달해야 할 우리의

오아시스는 종종 언덕 너머에 있다. 그런데, 한 번 좁고 컴컴한 골짜기에 멈춰버린 공은 더 이상 내려갈 경사를 찾지 못하고 멈춰만 있게 되겠다. 이때 교육이라는 자선이 빛을 받게 된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눈속임이나 거짓말 같은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지금 당장은 고단하더라도, 믿음과 성실로 언덕을 넘고 나면 눈앞에 장관이 펼쳐질 것이라는 조언이다. **고등과학원 수학과 교수**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방2 + 화장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화장,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장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장3, 1,360sqft, 1985년 \$500,000
---	---	---	--

꼭,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재학생들이 시도해 보며 배울 수 있게 학부 연구소 운영”

심종혁 서강대 총장

“강의실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뭔가 시도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죠.”

서강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실이 아닌, 학부생이 주축이 돼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심종혁 총장의 아이디어였다. 그는 “과거와 같은 단계별 개념 학습으로는 학생의 잠재 능력을 깨낼 수가 없다”며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듯, 그렇게 스스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운 게 더 오래 가고, 더 많이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서강대 총장실에서 심 총장을 만나 서강대의 교육 철학과 비전에 대해 물었다.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지식이라는 개념으로만 갖고 있기보다, 그 지식을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서강대의 전통 중 하나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교육을 하고, 산학협력에 앞장서는 게 그 일환이다. 학부생 연구소도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전통에서 탄생했다. 24시간 열려 있는 공간에서 학생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자유롭게 꺼내서 이것저것 실제로 만들어볼 수 있다.”

“창업을 잘하는 대학으로도 유명하다. “최근 상장한 엔젤로보틱스, 이미 유명한 스타일게이트 모두 교내 창업의 성과다. 학생·교원 모두 창업을 꿈

실용 전문가 양성이 교육 철학 엔젤로보틱스 등 유망기업 배출

직장인 위주 반도체 과정 추진 병원과 협력해 의대 설립 검토

꿀 수 있도록 창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부생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도 캡스톤(작품을 기획·설계·제작하는 전 과정)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하도록 권장하고, 창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원의 경우 창업 관련 매우 협조적인 인사 제도를 갖고 있는 데다가, 국문과 교수도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해준다.”

서강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융합’ 교육의 원조로 꼽힌다. 1960년 개교 때부터 학문간 통섭을 강조한 서강대는 연계전공·복수전공·학생설계전공 등 융합전공 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서강대는 18일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칭 판교디지털혁신 캠퍼스에서 ‘평생 교육’과 ‘재직자 고등교육’이라는 새로운 통합 교육 모델을 시도하기로 했다.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지나.

“산업체 재직자 중심의 반도체 특화 교육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고교 졸업자 중심 교육만으로 대학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사회적으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직업으로 일생을 책임지게 되는 것도 어



심종혁 총장은 “우리대학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며,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인재를 원한다”고 했다. 김중호 기자

려워지는 상황이다. 대내외적으로 대학 교육의 역할이 변해야 하는 시점이다. 서강대는 인문·교양 중심의 평생 교육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및 과학기술 중심의 평생 고등교육을 추진하려고 한다. 기업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과 재취업자를 위한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융합 교육을 위해 무전공 선발 제도를 도입한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내 ‘AI기반 자유전공학부’를 50명 정원으로 신설했다. 얼핏 기존 자유전공학부와 같아 보이지만, 서강대의 AI기반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때 AI·SW 중심 기초교육을 받고 2학년 때부터 본인이 선택한

전공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1학년 때 받은 AI·SW 기초 교육을 토대로 새로운 전공을 배우는 것은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내 각각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와 ‘SCIENCE 기반 자유전공학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심 총장은 병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꾸준히 동문들을 만나 앞으로 학교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의대 유치 등 대학·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대외적 평가, 리더십 부분에서 최

근 몇 년간 학교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동문들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았다. 총장 취임 후 동문들 만나서 사과했고, 많이 바꾸겠다고 했다.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지금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다. 우리만 좋은 학교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대외적 평가가 좋아야 좋은 인재가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학교 발전을 더 이끌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의대 유치도 준비 중이다. “의대 유치는 서강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동문들의 오랜 희망 사항이다. 총장에 취임 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과의 협력·연합을 통해 의대를 확보하는 방법, 또는 병원 협력을 통해 서강대의료로 확장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내적으로는 이미 대학내 바이오·메디컬 부문에서 연구하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다.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른 의료기관과 연구 협력도 꾸준히 맺으면서 내실을 기하려고 한다.”

이후연·서지원 기자

심종혁 총장=1974년 서강대 수학과에 입학, 물리학을 복수전공했다. 동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사목학 석사, 이탈리아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의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서강대 교수로 부임해 총무처장, 대외협력처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직업별 알맞은 학위

모든 직업이 박사 학위자만을 찾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력만 높다고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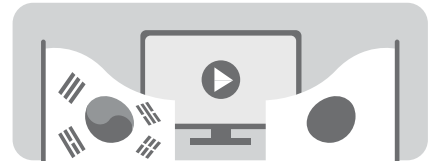
모두 일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구하기 좋은 것도 아니다. 여러가지 고수의 직업에 맞는 학위를 정리해 봤다. 이런 직종에서는 최소한 이정도 학위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정도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4년제 학위로 BS를 받아도 좋겠지만 탁월한 프로그래머라면 굳이 A.A나 BA일 필요는 없다.

<아래 표 참조>

2년제 준학사 (AA)	4년제 학사 (BA, BS)	대학원 졸업 (MS, MA, MBA MD 등)
-Aircraft and avionics technician -Computer support specialists -Computer programmer -Crime scene investigator -Database administrator -Dental hygienist -Drafting technologist -Electrician -EMT paramedic -Engineering technician -Game designer -Lab technician -Licensed practical nurse -Optician -Paralegal -Preschool teacher -Physical therapy assistant -Radiologist(X-ray technician) -Restaurant manager -Veterinary technician	-Accountant -Advanced nurse practitioner -Airline pilot -Animator -Civil engineer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Computer engineer -Computer system analyst -Construction manager -Dietitian -Financial adviser -Forester -Graphic designer -Hotel manager -Journalist -Landscape architect -Park ranger -Physician assistant -Social worker -Software developer -Teacher -Webmaster -Wildlife manager	-Archaeologist -Architect -Astronomer -College professor -Dentist -Doctor -Economist -Forensic scientist -Genetic engineer -Lawyer -Librarian -Microbiologist -Museum curator -Pharmacist -Physical therapist -Psychologist -Research scientist -Statistician -Veterinarian

나라키와 아야의 시사일본어



일본 드라마에서 주연한 배우 채종협이 신드롬급 인기를 얻어 ‘흡사마’라고 불리고 있다. 그는 지난 1~3월에 일본 TBS가 방영한 드라마 ‘아이 러브 유 (Eye Love You)’에서 여주인공 유리(니카이도 후미)와 사랑에 빠지는 한국 유학생 ‘태오’를 연기했다.

우리는 눈을 보면 사람의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 ‘Eye Love You’다. 그런데 태오의 마음 소리는 한국어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다. 방송에서도 태오의 마음 소리를 일본어 자막 없이 한국어로만 표현해, 시청자들이 하여금 유리의 답답한 마음을 공유하게 만들었다.

일본 지상파 방송의 황금 시간대 드

라마에서 한국 배우가 주연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또 자막 없이 한국어가 방송에 등장했다는 점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였다면 항의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반응보다 호평이 훨씬 더 많았다.

‘사마’는 ‘남’이라는 뜻이다. 한류 붐의 계기가 된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연 배우 배용준이 ‘윤사마’라고 불렸다. 여주인공을 맡은 최지우는 ‘지우히메’라고 불렸는데 히메는 ‘공주’라는 뜻이다.

‘겨울연가’는 2003년에 일본에서 방영됐고 그래서 작년엔 ‘한류 2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일본에서 열렸다. >4면 ‘시사일본어’로 이어집니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Grant 와 Loan 종류

학교 지원시 재정 보조 신청서를 낸 학생이라면 합격 편지와 더불어, 아니면 한두 주 시간차를 두고 재정보조 내역서(financial aid package) 라는 것이 도착한다.

FAFSA와 CSS Profile을 꼭 시작해야 하며, FAFSA가 제출되면 연방 정부는 FAFSA를 근거로 가정 부담금을 정하게 된다. 이를 기본적 근거로 각 대학은 지원한 학생들의 재정보조를 책정하게 될 것이다. 재정보조 패키지는 학생이 받게 될 학자금 보조를 종류별로 나열하고 각 보조 형태에 따른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 패키지를 보면 우선 순위가 필요 없는 Grant가 있다.

연방정부에서 주는 Federal Grant인 Pell Grant 등이 있고, 주 정부에서 주는 State Grant, 또 학교에서 주는 Institutional Grant가 있다. 그랜트의 명목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다시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돈이다.

학교에서 주는 Grant는 학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다.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Grant를 수 만불 이상 주

도 하고 주립대학은 보통 오천 불 이하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주 정부에서 주는 Grant가 있다.

대표적으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Grant가 그것이고 기준은 주마다 다르다. Grant 외에 재정보조 패키지에서 볼 수 있는 재정 보조의 종류는 Work Study 라는 것으로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조 방식이다.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해서 Work Study에 정해진 금액 만큼 벌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Grant가 많이 나와서 학생이 학비를 최대한 적게 내고 다니는 것을 가장 바라겠지만 재정보조 라는 것은 Grant와 더불어 용자도 재정 보조이기 때문에 현실은 많은 가정에서 용자 라는 형태의 재정 보조를 받게 된다. 재정보조 패키지에 Subsidized Loan/Unsubsidized Loan 으로 적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학자금 용



줄리 김
탐애틀피아 대표



자이다.

퍼킨스 용자는 모든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가 용자를 해주는 Lender 가 되며 그 해당 학교의 Loan Servicer가 용자상환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없어지게 되었다.

학부생의 경우 최대 용자액은 일년에 5,500불 정도 이고 이자율은 4~5% 내외로 해마다 유동적이다. 졸업 후, 혹은 학교를 휴학하게 되는 경우라도 6개월 후 부터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십 년 내에 갚도록 되어 있다.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은 용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환 기간을 얼마나 정하는 지에 따라 다르다.

졸업을 하더라도 장애자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초등/중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가르치게 되면 용자 상환을 연기하거나 아예 탐감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새롭게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Subsidized Loan과 Unsubsidized Loan은 US Depart of Education(교육부) 에서 학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서 Subsidized Loan은 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와 졸업 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정부에서 이자를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이고, Unsubsidized Loan은 이자 상환의 책임이 학생에게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형태의 Direct Loan은 Plus Loan (Direct Plus Loan)이라는 것으로서 학생이 부모의 보조를 받는 dependent의 신분인 경우 그 부모에게 학자금을 빌려주는 용자 형태이다. 이자율은 7~8% 내외이며 부모님 중에 비교적 좋은 한 분의 신용 상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재차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Grant가 되었는지 용자가 되었는지 어떤 형태로든 학자금 보조를 받아야 하는 형편에 있는 모든 학생은 재정보조의 첫 단계인 FAFSA 신청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의 : 703-576-7803, Email : topedupia@gmail.com

첫 디지털 SAT서 “수학 어려웠다” 많아...학생에 따라 문제의 난도 변화가 특징

대입 들여다보기

지난달 9일 전국에서 SAT의 새로운 형태인 '디지털 SAT'가 실시됐다. 가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한인학생들도 디지털 SAT를 치렀다.

사상 처음 완전히 디지털 형태로 실시된 SAT에 대해 수험생들의 다양한 경험담이 쏟아져 나왔다. 학생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종이와 연필을 쓰는 기존 방식의 SAT를 두 번 치른 뉴욕 브루클린의 한 학생은 지난 9일 디지털 SAT를 치른 뒤 '최악의 시험' 이었다고 불평했다.

디지털 SAT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이전 섹션에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따라 다음에 나오는 문제의 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댑티브(adaptive)' 방식이라고 한다. 또 다른 특징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스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리지보드는 더 쉬운 문제가 주어졌다고 해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첫 디지털 시험을 치른 학생의 과반수는 영어 읽기와 쓰기 섹션보다 수학 섹션이 더 어려웠다고 전했다. 일부는 영어 읽기와 쓰기 섹션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많은 학생들은 새로운 형식의 SAT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카고의 한 17세 학생은 영어의 읽기 지문이 짧고, 수학 섹션을 풀 때 계산기를 따로 가져올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에 내장된(built-in) 계산기를 쓸 수 있는 점이 더 좋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수업을 디지털로 배우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 형식이 자신의 경험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SAT는 디지털 환경에 더 익숙한 요즘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 수가 기존 시험보다 적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제 하나당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영어 읽기 지문의 길이가 더 짧아지고 수학 섹션에서 내장된 온라인 계산기를 쓸 수 있게 한 것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시험 장벽을 낮출 것으로 일각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SAT의 경우 학생들이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어댑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 난이도가 학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랩탑이나 태블릿PC를 가져오거나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없으며 시험감독관의 감독 아래 공공 시험 장소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디지털 SAT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영어 읽기 지문이 짧아진 것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때론 일부 시험 센터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시험 시작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와이파이(Wi-Fi)에 접속하는 데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지아 스테이트 대학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와이파이 접속 문제로 인해 시험이 30~45분 지연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시카고의 링컨파크 지역에서 시험을 치른 16세 학생 매튜 슈미트는 "모든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시간

이 좀 걸렸지만, 디지털 SAT를 처음 치르는 것이어서 그런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른 경험담을 밝히기도 했다.

나와있는 모든 답이 틀린 것으로 보이는 수학 문제가 있었고, 내장된 계산기가 잠시 작동이 안되기도 했다. 이들은 전했다. 뉴욕에서는 한 학생이 시험장에서 랩톱 충전기가 필요한 일이 생겼다. 또한 이 학생은 온라인 계산기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할 지도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집에서 계산기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SAT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칼리지보드의 블루북(Bluebook) 앱을 다운로드 연습문제를 꼭 풀어볼 것을 권하고 있다. 새로운 어댑티브 방식에 친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총 미국을 포함해 173개 국가의 3000개 시험센터에서 2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디지털 SAT를 치렀다. 이 가운데 99.8%가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빈센트 김 카운슬러-어드미션 매스터즈

>> 3편 '시사일본어'에서 이어집니다

그 밖에도 드라마 '미남이시네요'(2009)가 히트 치면서 인기를 얻은 주연 배우 장근석은 '군짱'이라고 불렸다. '짱'은 친근감 있게 부를 때 쓴다. 일본 팬은 오라가는 편인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쓰'가 화제가 됐을 당시 주간지 주간아시아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 배우의 인기 순위는 1위 박서준, 2위 장근석, 3위가 현빈이었다.

흡사마의 인기로 힘입어 한·일 양국에서 한·일 남녀가 주인공을 맡은 드라마가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는 사카구치 켄타로가 이세영과 함께 등장하고, 일본 넷플릭스 시리즈 '로맨틱 어나니머스'에서는 한효주가 오구리 순과 호흡을 맞춘다.

현재 방영 중인 MBN 프로그램 '한·일 가왕전'에서는 한국 가수가 일본어로, 일본 가수는 한국어로 노래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류 20년 동안 양국 관계가 안 좋은 시기도 있었지만, 양국이 손잡고 만든 콘텐츠가 사랑받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감개가 무량하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 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비비 “내 가사가 자극적? 돈 벌려고 썼었죠”

첫 팬콘서트서 솔직매력 발산
“새 블루오션 찾으려 밤양갱 불러”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밤양갱~”

‘밤양갱’ 폐창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명화라이브홀에서 열린 비비의 첫 번째 팬 콘서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에서 울려 퍼졌다. 장기가 작사·작곡해 지난 2월 중순 발표한 ‘밤양갱’은 비비를 대중에 알린 메가 히트곡이다. ‘어둠의 아이유’란 별명을 가진 비비는 이 노래로 비슷한 시기 컴백한 아이유를 제치고 멜론·지니 등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팬 콘서트 MC를 맡은 피식대학 정재형은 “대한민국이 비비 열풍이다. 밤양갱 매출이 두 배 이상 올랐고 미국

의 ‘코첼라’(미국 최대규모 뮤직페스티벌)에서도 ‘밤양갱’을 불렀다”고 말했다. 관객들에게 밤양갱을 선물로 나눠 주기도 했다.

비비는 이날 공연에서 ‘밤양갱’을 세 번이나 불렀다. 팬과의 듀엣 무대는 물론 본 무대와 앙코르까지, 기분 좋은 달콤함을 팬들과 나눴다. 그는 “물만 마셔도 함성이 터지는, 사랑받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거였다. 콘서트와는 다르게 인간 김형서(비비 본명)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공연은 팬미팅과 콘서트를 결합한 형태로 20, 21일 양일 간 2200여 명의 팬(팬덤명 ‘비비탄’)과 함께했다. 공연명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는 2022년 비비의 첫 정규앨범 기념 콘서



비비는 도발적인 노래를 주로 불러, ‘어둠의 아이유’라는 별칭이 있다. [사진 필굿뮤직]

트 ‘와주시면 안될까요?’와 연결돼 눈길을 끌었다.

최근 2년 간 비비는 연기와 노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영화 ‘화란’의 주

연을 맡아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했고, 그해 유명 라틴 가수 베키G와 콜라보레이션 싱글 ‘아미고스’를 발매했다.

팬 콘서트엔 비비의 해외 팬도 많았다. 당일 비행기를 타고 온 팬도 있어 비비를 놀라게 했다. 비비는 “많은 나라에서 팬들이 오셨다”면서 “앞으로 점점 거만해질 수 있다. 20년 후엔 공연명을 ‘와’라고 짓겠다. 그때까지 우리같이 살아보자”고 농담조로 얘기했다.

비비는 팬 콘서트에서 넘치는 끼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달달한 ‘밤양갱’ ‘슈가 러쉬’ ‘사랑의 묘약’을 부르는가 하면 강렬하고 도발적인 ‘나쁜 X’ ‘조또’ ‘쉬가릿’ 등도 선곡했다.

비비는 “‘밤양갱’으로 나를 알게 된 분들은 ‘비비, 왜 이리지?’라고 생각하

실 수 있다. (하지만 난) 원래 이런 음악을 주로 썼다”면서 “그 이유는 돈을 벌려고 그랬다.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을 것 같은 (자극적인) 소재들로 노래했다. 내가 노래 쓸 때 만해도 블루오션이라 경쟁력이 있었다. 지금은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느낌으로 ‘밤양갱’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아끼는 곡으로 데뷔곡인 ‘비누’를 꼽았다. “벌써 데뷔 6년차가 됐다. 그럼에도 때론 무섭다. ‘비누’는 그럴 때마다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노래다. 좋지 않은 일을 씻어낼 수도 있고, 이제까지의 모습을 지워내고 새로운 모습을 꺼낼 수도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곡”이라고 밝혔다.

황지영 기자

최은우, 막판 1타 차 뒤집기... 타이틀 지켰다

프로 10년 차 최은우(29)에게 경남 김해의 가야골프장은 약속의 땅이다. 경기 막판 극적인 버디를 잡아내면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최은우는 21일 경남 김해 가야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타를 줄여 합계 8언더파 208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생애 처음 우승을 차지했던 최은우는 1년 만에 다시 정상에 밟으며 챔피언 타이틀을 지켰다. 우승 상금은 1억 6200만원.

1995년생인 최은우는 어릴 때 주로 골프 유학을 떠났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모두 호주에서 나왔다. 대학교(건국대) 진학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뒤 2015년 KLPGA 투어(1부)에 데뷔했다. 그러나 프로 무대에선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프로 동기생인 박지영과 지한솔·박결·박채윤 등이 차례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최은우는 좀처럼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러다 프로 9년째를 맞은 지난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생애 처음으로 정상을 밟았다. 이어 올해 같은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면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2승. 프로 무대에서 거둔 두 차례 우승을 모두 가야골프장에 거뒀던 뜻이다.

전날 2라운드를 함께 7언더파로 마친 최은우는 공동선두 정윤지·박현경과 함께 챔피언 조에서 출발했다. 초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5번 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해 1타를 잃었다. 반면 정윤지는 9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면서 단독선두로 치고 나갔다.

그러나 최은우는 14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킥 4m 옆으로 붙인 뒤 버디를 잡아내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16번 홀(파5)에선 운도 따랐다. 두 번째 샷이 페어웨이 왼쪽의 숲속으로 날아갔는데 공이 갤러리가 소지한 스마트폰에 맞고 경기 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운 좋게 별타를 면한 최은우는 17번 홀(파3)에서 전세를 뒤집었다. 8언더파로 선두를 달리던 정윤지가 파 퍼트를 놓친 반면, 1타 차로 뒤졌던 최은우가 2m짜리 내리막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정윤지는 합계 7언더파로 2주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현경은 마지막 날 1타를 잃어 합계 6언더파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은우는 “지난해 처음 우승했던 코스여서 올해도 자신감이 있었다. 오늘은 생각보다 버디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힘들었다. 16번 홀에선 갤러리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에 맞고 공이 안으로 들어오는 등 운도 따랐다. (갤러리가 갖고 있던) 전화기가 깨졌다고 들었는데 ‘꼭 보상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곽봉준 기자

홈구장 첫 홈런에 썰기 2루타 이정후, 11경기째 안타 행진

올 시즌 메이저리그(MLB)에 데뷔한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홈구장에서 첫 홈런을 터트렸다. 빅리그 통산 2번째 홈런이다. 경기 후반엔 썰기 타점까지 기록하면서 팀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이정후는 21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첫 타석부터 홈런포를 터트렸다. 0-1로 뒤진 1회 말 선두타자로 나선 그는 애리조나 에이스 잭 갤런의 2구째 높은 직구(시속 149km)를 힘껏 잡아당겼다. 타구는 시속 158km의 속도로 약 111m를 날아가 오른쪽 담장을 넘어갔다.

이정후는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MLB 첫 홈런을 신고한 지 21일 만에 두 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홈구장 오라클파크에서 때려낸 1호 홈런이기도 하다. 이정후는 또 지난 8일 샌디에이고전부터 11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 역대 한국인 빅리그 데뷔 시즌 최장 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작성했다.

종전 기록은 2015년 강정호(당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2016년 김현수(당시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10경기 연속

애리조나 상대로 시즌 2호 홈런
3경기 연속 멀티히트, 타율 0.289
“매 타석 홈팬들 응원에 좋은 타격”

안타했다.

이정후는 경기를 마친 뒤 “홈구장이 (좌타자가) 홈런을 치기 어려운 구장이고, 나도 홈런 타자가 아니라서 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21일(한국시간) 홈에서 벌어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 1회 말 선두타자로 나와 홈런을 치고 1루 베이스를 지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욕심은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첫 홈런을 치게 돼 기분 좋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이날 이정후가 타석에 설 때마다 “정후리!”를 목놓아 외치며 응원한 홈팬들에게 “그렇게 큰 목소리로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이정후의 홈런 덕분에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 홈런이 우리 타선에 불을 붙였고, 경기의 전환점이 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정후는 이날 마지막 타석에서도 장타로 값진 타점을 뽑아냈다. 5-3으로 앞선 8회 말 1사 2루에서 애리조나 오른손 불펜 투수 미겔 카스트로의 9구째 체인지업을 밀어쳐 좌익선상으로 빠지는 2루타를 터트렸다. 샌프란시스코의 리드를 3점 차로 늘리는 썰기 타점이었다. 이정후가 한 경기에서 2타점 이상을 기록한 것도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전 이후 21일 만이다.

그는 이후 후속타자 마이클 콘포토의 우전 적시타 때 홈을 밟아 팀의 마지막 득점까지 올렸다.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3경기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에 성공하면서 시즌 타율을 0.289(83타수 24안타)로 끌어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7-3으로 이겼다. 배영은 기자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식당 자리 6,408 SF, 엘버나 메릴랜드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식당 자리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외잇마쉬 메릴랜드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익 한달 1만6천, AP 36만불	Beer & Wine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도장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사무실 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창고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비, 9000 SF, VA 현든 그로서리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상가 단독 건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주택 콘도 방2, 화2,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맨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랜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 업 체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지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거짓말**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 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선: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첸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팩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마켓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사유 없는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첸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첸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Information Clerk for YM Dental Lab.
703-330-1990(Ask Mr. YM Kim)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베일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물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시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일샵에서 빵구수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첸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리지 지역
571-455-3609

스태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엇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태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트타임/풀타임, 엘리엇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틀에서
파트타임 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4채 매매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200/m
▶ 매매가: \$5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중앙일보**

<p><정비/바디샵></p> <p>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p> <hr/> <p>자동차 메케닉 구함 (애난데일) 571-243-9899</p>	<p>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p>	<p>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p>	<p>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p>	<p>240-543-6427</p> <p>애난데일 한강근처 타운홈 방세놓음 전화: 571-699-9707</p>
<p>자동차 정비서비스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일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p>	<p>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p>	<p>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p>	<p>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p>	<p>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p>
<p>자동차 정비서비스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p>	<p>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 연봉과 베네프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p>	<p>버크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폴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p>	<p>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세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p>	<p>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p>
<p>첸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p>	<p>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p>	<p>베이비씨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 가능한분, 성실한분 213-839-3735</p>	<p>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3. 쇼핑몰, 교통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p>	<p>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p>
<p>엘리콧시타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p>	<p>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p>	<p>부동산 렌트</p> <p><싱글/타운하우스 렌트></p>	<p><콘도 렌트></p>	<p>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p>
<p>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프!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p>	<p>라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p>	<p>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l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p>	<p>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p>	<p>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p>
<p>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p>	<p>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p>	<p>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p>	<p>페어팩스 웨그랑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p>	<p>노스 포드맥, NIST 근처 싱글홈 반 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발라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p>
<p>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p>	<p>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p>	<p>아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맥,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p>	<p>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p>	<p>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p>
<p><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p> <p>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p>	<p>필그림유치원에서 토틀러반 오후 파트타임 선생님 구합니다. 571-212-9020</p>	<p>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p>	<p>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홈 방1개, 주차 넉넉 703-965-2343</p>	<p>DC 출퇴근 매우 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p>
<p>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p>	<p>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분 703-980-9890</p>	<p>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2, 리버힐 학교 410-599-1800 문자요망</p>	<p>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1개(욕실/화장실) 571-970-8048</p>	<p>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p>
<p>HD Plus Construction 말뚱산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캐빈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p>	<p>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p>	<p>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p>	<p>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p>	<p>방렌트, 홈디포 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p>
<p>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제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p>	<p>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폴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p>	<p>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p>	<p>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p>	<p>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그랜마트6분 롯데 11분, 오래게실분 702-622-8853</p>
<p>EV Electric Co. 차, 베네프,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p>	<p>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험자 703-499-0857</p>	<p>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p>	<p>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p>	<p>MD 렌함지역, 조용·교통편리, 직장인 원함. 즉시입주 가능. 방세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p>
<p><기타 구인/구직></p> <p>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p>	<p>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p>	<p>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p>	<p>애난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1,300) 703-618-6634</p>	<p><사무실/점포 렌트></p> <p>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p>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싱글홈 (단층 구조) 추천
\$495,000
1층(방3)과 반지하(방1, 화1)에 각각 방,
화장실 보유
I-66 Highway에 근접, 교통 편리한 지역
병원, 쇼핑몰, 그로서리 등 근린생활 용이



1층 콘도 (시니어 생활 편리)
\$350,000
방2, 화2, 1,200 스퀘어,
여유로운 주차 환경,
저렴한 콘도피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C11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종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애넌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데이볼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넌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 1/2,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룸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립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일식집, 에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 리워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엘터레이션 가능한 한 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లే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힐더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건 해외입양 이동(임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건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하실 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건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건 들의 세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시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피맛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매매>

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703-431-4521 (문자 주세요)

이사(downsizing)세일
-treadmill & bike machine \$100
-짜라렘 \$100 -3bikes \$100
-tools \$100 -living room set \$300
문의: 703-581-2631

피아노(Sohmer & Co) Free로 드립니다.
240-477-2612(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 / 10,000 / 12,000(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틀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피아노(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 분 문자 주세요.
Tel.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까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드라이버 9.5도 315cc
-아연 닉텐드 4-9SP번까지 8개
-던랍(스페인제) 3-9SP 7개
-요넥스 6-9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족 소파 3명
\$200, 등산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P,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팝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병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익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턴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이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쥘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벨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넌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유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디맨서비스
집배-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입업 및 청소>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람 들판 잔디 깎기
올라라리안,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닛이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 Select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 ▶ 신속 ▶ 안전 ▶ 귀국 이사 전문
- ▶ 신용 ▶ 저렴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리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리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Golden Dew Jewelry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야기를 받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마이클 장

맞춤 용자의 길인 절망과 좌절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 ▶ 주택용자
- ▶ 상업용자
-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he grass is always greener; 남의 떡이 커 보이다

Lisa is talking to her boss Howard.
(리사가 상사인 하워드와 얘기하고 있다.)

Howard: Where's Helen? I haven't seen her today.
하워드: 헬렌 못 봤어요? 오늘 안 보이네요.
Lisa: She called in sick this morning.
리사: 오늘 아침에 아파서 못 나온다고 전화왔어요.
Howard: Lisa, tell me the truth. Is she job hunting?
하워드: 리사, 사실대로 말해요. 다른 일자리 찾고 있나요?
Lisa: I really don't know. I didn't talk to her this morning.

리사: 정말 몰라요. 오늘 아침엔 서로 말도 못 했어요.
Howard: C'mon, you're her best friend. She always talks to you.
하워드: 그러지 말고, 당신이 제일 친하잖아요. 당신에게 다 말하잖아요.
Lisa: Okay. You're right but she didn't want anyone to know.
리사: 좋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 않았으면 해요.

Howard: She may think the grass is greener at another company but she has a good job here.
하워드: 다른 회사가 더 좋아 보이겠지만 여기 일도 괜찮아요.
Lisa: But her heart isn't in her job any longer.
리사: 그런데 지금 업무에 마음이 떠났어요.
Howard: If that's the case I won't hold her back.
하워드: 그렇다면 막을 생각은 없어요.

▶ call in sick: 전화로 병가를 내다.
"If he calls in sick again I'll have to fire him."
(한 번만 더 아프다고 전화하면 그 사람을 해고해야 합니다.)
▶ job hunting: 직장을 구하다.
"She has been job hunting for more than a month."
(그녀는 한 달 넘게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31		32			33	
34							35

가로열쇠

(1)물속에서 사는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3) 산과 내와 풀과 나무. 자연. 그의 위세는 ~이 별 별 정도로 당당했다 (6)남이 모르게 덕행을 쌓은 사람은 뒤에 그 보답을 받게 됨. 중국 초나라의 손숙오가 집에 와서 머리가 돌 달린 뱀을 보면 죽는다는데 저는 이제 죽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도 죽을 거니까 뱀은 죽였어요. 하니 어머니가 말했다. 남모르게 덕을 쌓으면 보답을 받는단다. 손숙오는 훗날 재상이 되었다 (9)봉급을 정한 날짜 전에 지불함 (10)풍성하게 잘 차린 음식 (12)풀을 뜯으며 가축을 치는 아이 (13)음식이나 그릇 따위를 넣어 두는 장 (15)땀과 자조 (17)뛰어난 의견 (18)옥이 나는 곳에서 나오는 샘물 (20)전선이나 통신선을 늘어 매기 위하여 세운 기둥. 전봇대 (22)기관지에 경련이 일어나는 병.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며 가래가 심하다 (23)구리로 만든 사람의 형상 (25)사람이 죽음 (26)한가운데 (28)아이 가질 것을 암시하는 꿈 (30)매운 맛을 내는 채소 (32)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그러 하는지 알 수 없음 (34)큰 혼란에 빠진 곳. □□라□ (35)굵고 거세게 짝짜 내리는 비

세로열쇠

(1)떠들썩하게 기세를 울려 지르는 소리. 이것은 소리 없는 ~ 저 푸른 해안을 향하여 흐르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유치환/깃발) (2)쌀을 끓여 체로 걸러낸 걸쭉한 음식 (3)이리저리 천천히 거닐 (4)짚으로 지붕을 인 집 (5)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음. □□인□ (7)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 항목.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8)한 손으로 들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단 들통. 함석, 구리, 주석, 알루미늄 따위로 만든다 (11)곱게 잘 쪄낸 입쌀로 지은 하얀 쌀밥 (14)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 한창 때 ~이 그것도 못 들어 (16)부처 앞에 바치는 돈 (17)술에 몹시 취하여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몸도 못 가눌 만큼 ~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 (19)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임. ↔능동 (21)양복을 의젓하게 차려입은 남자 (22)주위에 돌보아 줄 핏줄 하나 없는 아이. □애□□ (24)위와 가운데와 아래 (27)원한을 품고 앙갚음하려고 버리는 마음 (29)물이 거의 다 닳아서 없어진 비 (31)가을걷이 (32)가슴. ~이 무너지다 (33)정식의 복장을 함

스도쿠

			5	8			6	
6	8		9					3
2	3		7					8
		5				8		7
			4	3		2	5	9
4			7	2	1			
8	7			6	9			
			6	3	7			8
	2					4		7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7	9	4	5	8	3	2	6
4	8	6	2	7	3	9	1	5
5	2	3	6	9	1	4	7	8
9	3	8	5	1	2	7	6	4
6	5	2	7	3	4	8	9	1
7	1	4	8	6	9	2	5	3
8	6	5	9	4	7	1	3	2
3	4	7	1	2	6	5	8	9
2	9	1	3	8	5	6	4	7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카드 유효 기한 (EXP. DATE: / /) <input type="checkbox"/>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매가 \$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결아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HotDeal.KoreaDaily.com
 미주 한인 사회 최저가 **온라인쇼핑몰**
HOT DEAL
 문의 213.368.2611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THE KOREA DAILY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기통학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산맥 **천공산삼**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가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플람·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상삼음육탕 도안역사탕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BAYVIEW ADVISORS FOR HEDGE FUNDS **All about Hedge Funds Investment**

CHRIS CHUNG MANAGING DIRECTOR 516-321-0353 chris@bayview.llc

30 Years of CPA experience for Hedge Funds

회사 설립 도와드립니다.

운영, 투자, 회계 관리 전문

경력 QR code 참조 JOHN CHUNG John.chung@bayview.llc 917-609-5690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대표 브랜드 대상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품질방 효과 탄소원선 원적외선 방출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계 탄소 원선 물세탁 가능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화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퀸 \$379 트윈 \$229 퀸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더블 \$299 싱글 \$169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더블 \$359 싱글 \$219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펫 중형 \$385 대형 \$465 중형 \$335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퀸 \$419 트윈 \$299 퀸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	---	--	--	--	-------------------------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